통일신보

무소속대변지 제27호 【루계 제2548호】

주체108(2019)년 6월 29일 토요일 음력 5월 27일

절세위인의 향도따라 삼천리 강토우에 존엄높고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자!

김정은각하의 존함은 인류의 보호자, 은인으로 길이 빛날것이다

여러 나라 인사들 격찬

여러 나라의 정계, 사회계인사들이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보장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위인상에 경탄을 금치 못해하였다.

《력사적인 조미수뇌상봉과 회담이 성과를 거둘수 있은것은 미래지향적이며 선견지명하신 **김정은**최고령도자의 특출한 령도력이 있었기때문이다.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수호하시려는 **김정은**최고령도자의 결단은 주체의 땅에 새로운 려명을 불러올것이다.》

이것은 싱가포르조미수뇌상봉과 회담이 진행된것과 관련하여 인디아인민당 고위지도자가 보내여 온 축전의 한 대목이다.

세네갈독립로동당 총비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김정은각하께서는 로숙하고 현명한 정치적수완으로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미합중국 대통령과의 력사적인 첫 수뇌회담을 마련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평화로운 국제관계를 마련하기 위한 명백한 방향을 제시하시였다.

특히 세계의 모든 국가수반들이 언제 어디서나 인민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활동해야 한다는 행동지침을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전인디아진보전선 중앙위원회 총비서와 민주꽁고공산당 총비서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싱가포르조미수뇌회담에서 세계외교력사의 새로운 장을 쓰시였다, 평등한 조건에서 채택된 공동성명은 조선반도뿐아니라 전세계에 평화를 가져올것이다, 그이는 위대하고 특출한 령도자이시다고 격찬하였다.

이딸리아통일공산당 총비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미국대통령과의 력사적인 첫 수뇌상봉과 회담을 성과적으로 진행하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장기간에 걸친 옳바른 정책과 투쟁에 의하여 마련된 새로운 승리는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민족적독립을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하고있는 세계 진보적인민들에게 커다란 고무를 안겨주었다.

조선반도에 긴장완화와 안정, 평화의 분위기가 도래한것과 관련하여 세계적으로 긍정적인 반향이 일어났으며 제국주의자들은 당황해하고있다.

주체사상국제연구소 사무국장은 **김정은**각하께서는 조미수뇌회담을 실현시키시였을뿐아니라 조선과 세계의 밝은 미래를 약속하는 훌륭한 공동성명도 발표하시였다,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바치시며 새 세계에로의 로정을 개척하신 걸출한 령도자에 대한 흠모의 정으로 가슴이 뿌듯해진다고 격찬하였다.

싱가포르조미수뇌회담은 조선인민과 전세계의 열렬한 지지와 환영속에 성과적으로 진행되였다고 하면서 단마르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친선협회 위원장은 이것은 조선반도에서 마련되고있는 화해와 평화, 안정과 번영을 더욱 촉진하고 조미사이의 적대적인 관계를 급전환시키는데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대사변이라고 강조하였다.

기네조선친선 및 련대성협회 위원장은 **김정은**각하의 담대한 결단과 평화수호의지에 의하여 마련된 6.12조미공동성명은 온 세계를 충격과 환희, 격정으로 끓어번지게 하였으며 이는 진보적인민들에게 평화와 공동의 번영에 대한 커다란 희망과 기대를 안겨주었다고 지적하였다.

김정은각하의 담력과 령도력이 조미수뇌상봉과 회담을 안아왔다고 하면서 미국세계평화와 사랑련합 회장은 그이께서는 미국대통령과 함께 외교적협상과 진지한 대화 그리고 호상협력을 통하여 분쟁은 어떻게 해결하며 평화는 어떻게 이룩하는가를 실천적모범으로 보여주시였다고 강조하였다.

조선인민과의 련대성 및 조선통일지지 아랍위원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첫 조미수뇌상봉과 회담은 불미스러운 과거사를 끝장내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시려는 **김정은**각하의 과감한 결단에 의해 마련되였다.

국제사회는 지구상에서 가장 적대적이던 조미 두 나라가 관계개선을 이룩하고 세계평화에 이바지하기를 희망하고있다.

미국이 조선과 다시 마주앉아 문제해결을 바란다면 대화상대방을 존중하고 새로운 계산법을 찾는것이 중요하다.

아랍사회부흥당 지역지도부 성원이며 로동자부장 겸 농민부장인 수리아아랍조선친선협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 **김정은**동지의 대용단에 의하여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 력사상 처음으로 조미수뇌상봉과 회담이 진행되고 6.12조미공동성명이 채택되였다.

우리는 국제적정의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조선로동당의 립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또한 인류가 념원하는 새 세계를 건설하며 모든 나라 인민들의 발전과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조선로동당과 긴밀히 협조해나갈것이다.

이 기회에 **김정은**동지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리며 조선로동당이 나라의 부강번영을 위한 길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

앙골라인민해방운동 청년조직 국제비서는 이렇게 강조하였다.

조미공동성명의 채택은 전세계에 커다란 충격을 준 력사적인 사변이였다.

조미공동성명리행을 위한 조선의 노력에 전적인 지지를 보낸다.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서 성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주체사상연구소조 탄자니아전국조정위원회 부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세계의 모든 주체사상신봉자들과 진보적인민들은 력사적인 조미수뇌상봉과 회담을 열렬히 축하하고있다.

조미사이의 공동성명의 채택은 핵을 보유하고있는 두 나라가 비난과 위협으로 일관되여오던 지난 시기의 적대관계를 끝장내고 새로운 관계를 가지게 되였다는것을 보여주었다.

인류에게 밝은 미래를 안겨주신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 만세!

전 인도네시아공화국 대통령도 **김정은**원수각하께서는 자신있고 담대한 결단으로 조선반도의 밝은 전망을 열어놓으시고 력사의 새로운 장을 펼치시였다, 세계는 공동성명의 내용이 전적으로 리행되기를 기대하고있으며 조선의 통일을 열렬히 희망하고있다고 강조하였다.

세계사적사변인 조미수뇌상봉이 이룩될수 있은것은 **김정은**동지의 정력적이고 일관한 평화정책이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라고 하면서 백두산위인칭송국제축전 스위스조직위원회 위원장은 세기를 이어온 조미사이의 적대관계를 끝장내고 정상적이며 훌륭한 관계에 기초한 새로운 평화시대를 열어나갈수 있는 길이 마련되였다고 지적하였다.

아시아지역 주체사상연구소 리사장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존경하는 **김정은**각하께서는 조미수뇌회담에서 훌륭한 성과를 거두시였다.

이것은 세계평화와 안전에 있어서 그 의의가 매우 크며 조선의 통일을 이룩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안아오기 위한 긍정적인것으로 된다.

김정은각하의 존함은 인류의 보호자, 은인으로 길이 빛날것이다.

본사기자

《세기의 지도자》, 《민족의 영웅》

남조선 각계층의 흠모심

복잡다단한 국제정치정세를 주도해나가시며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을 우러러 터치는 남조선 각계층의 흠모의 목소리가 온 남녘땅에 메아리치고있다.

남조선 각계층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지난해 력사적인 북남, 조미수뇌상봉과 회담들을 통하여 위인적인 풍모와 탁월한 외교술로 세인의 마음을 틀어잡으시였다고 하면서 《세기의 지도자》, 《민족의 영웅》,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 통일의 새시대를 안아오는 위인》이시라고 높이 칭송하고있다.

진보적청년학생들은 지난해 11월 백두수호대를 결성하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천출위인상을 널리 선전하는 사업을 비롯하여 북남선언들을 철저히 옹호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얼마전에는 단체의 명칭을 4.27판문점선언, 9월평양공동선언리행 방해세력제압실천단 백두수호대로 개칭하고 활동범위를 확대하고있다.

그들은 단체결성과 관련한 모임에서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발표과정을 통하여 **김정은**국무위원장님의 소탈하신 인품과 큰 포옹력에 온 국민이 놀라고 감탄하였다, 남녘민중모두가 걸출한 민족령수의 모습, 북의 진짜모습을 보게 되였다고 토로하였다.

한편 대학생진보련합은 올해초부터 **김정은**국무위원장연구모임을 결성하고 활발한 활동을 벌리고있다.

단체는 평화와 번영, 통일시대를 바라는 대학생들은 누구보다 **김정은**위원장님에 대해 잘 아는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혁명활동, 말씀 등을 자료집으로 발간하고있다. 또한 **김정은**위원장님에 대한 연구내용발표회, 대학생토론대회, 론문대회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있다.

남조선인터네트홈페지들에는 《**김정은**위원장은 보면 볼수록 매력있고 너무 멋있는분이다.》, 《강단있고 배짱있는 지도자이며 훌륭한 위인이다.》, 《**김정은**위원장의 열렬한 지지자가 되고싶다.》는 글들이 련이어 오르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혁명령도에 대해 소개한 도서들이 련이어 출판되고있으며 TV방송들에서 《**김정은**위원장은 왜 위인인가》라는 주제의 편집물이 제작방영되고있다.

언론, 전문가들은 온 남녘땅에 **김정은**열풍이 끓어번지고있는것은 일찌기 없었던 사변적인 현상이라고 평하고있다.

본사기자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국제행동기간》, 6.12조미공동성명채택 1돐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에서 행사 진행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국제행동기간》과 력사적인 6.12조미공동성명채택 1돐에 즈음하여 베네수엘라, 로므니아, 일본에서는 집회, 좌담회, 토론회가, 수리아, 기네, 앙골라에서는 영화감상회가, 세네갈에서는 인터네트사진전시회가 7일부터 12일까지의 기간에 진행되였다.

영화감상회들에서는 력사적인 첫 조미수뇌상봉과 회담을 수록한 영화가 상영되였다.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한 행사들에서는 발언들이 있었다.

베네수엘라 까라보보주 나구아나구아시장은 지난해는 조선인민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높으신 정치실력이 과시되고 그이의 령도밑에 조선의 통일과 세계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담보가 마련된 력사적인 해였다고 말하였다.

주체사상연구 베네수엘라전국협회 위원장은 전세계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속에 진행된 첫 조미수뇌상봉과 회담에서 6.12조미공동성명이 채택된것은 **김정은**동지의 특출한 외교지략과 담대한 결단, 평화수호의지의 빛나는 결실이라고 격찬하였다.

로므니아사회주의당 위원장은 국제사회는 1년전 싱가포르에서 진행된 조미수뇌상봉을 목격하면서 **김정은**최고령도자의 세련된 풍모에 경탄을 금치 못해하였다, 지난날 렬강들의 각축전장으로 되였던 조선이 오늘 자주권과 존엄을 굳건히 수호해나가고있는것은 철의 담력과 배짱을 지니신 비범한 령도자를 모시였기때문이다고 강조하였다.

로므니아조선친선협회 위원장은 조선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이룩하기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동적조치들은 수많은 나라들로부터 열렬한 지지를 받고있다고 언급하고 미국이 대조선제재와 압박책동을 철회하고 공동성명리행에 나설것을 요구하였다.

일조학술교육교류협회 회장을 비롯한 각계 인사들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한사코 가로막으려는 세력들의 책동을 짓부시고 6.12조미공동성명의 리행을 지지하는 활동을 적극 벌려나갈 의지를 표명하였다.

기네국방성 대기특공대 대대장은 **김정은**위원장의 눈부신 대외활동은 세계의 관심을 모으고있다, **김정은**위원장께서는 조미관계를 새로운 출발점에 올려세우심으로써 세계정치구도를 크게 변화시키시였다, 참으로 그이는 세계에서 제일가는 지도자이시다고 칭송하였다.

력사적인 6.12조미공동성명채택 1돐에 즈음하여 끼쁘로스, 오스트리아단체가 10일과 12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끼쁘로스조선문화친선협회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김정은원수께서는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위한 의의있는 제안들을 내놓으시고 그 실행을 위한 조치들을 취해주심으로써 국제사회계의 찬양을 받고계신다.

우리는 미국이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철회하고 조미공동성명을 성실히 리행할것을 요구한다.

온갖 도전속에서도 평화와 발전의 길로 전진하고있는 조선인민에게 련대성을 보낸다.

오스트리아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관계촉진협회는 력사적인 조미수뇌상봉과 회담은 **김정은**원수각하의 탁월한 지략과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마련되였다고 하면서 나라의 통일과 번영을 위한 조선의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고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조국소식

김책공업종합대학 미래과학기술원 준공식 진행

나라의 과학기술인재양성의 원종장인 김책공업종합대학에 미래과학기술원이 새로 일떠섰다.

미래과학기술원에는 첨단기술제품의 개발과 생산, 제품검사를 위한 현대적인 설비들을 갖춘 개발실, 실험실들과 국제학술토론회장, 회의실, 면담실 등이 완벽하게 갖추어져있다.

미래과학기술원이 완공됨으로써 사회주의자립경제를 떠메고나갈 높은 탐구능력과 응용능력을 지닌 창조형의 과학기술인재들을 육성하고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을 힘있게 추동하는 또 하나의 첨단기술제품개발기지가 마련되게 되였다.

조선로동당의 뜨거운 사랑과 은정속에 훌륭히 일떠선 김책공업종합대학 미래과학기술원 준공식이 24일에 진행되였다.

김책공업종합대학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김책공업종합대학 첨단기술제품개발기지를 국가적인 중요건설대상으로 선정해주시고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풀어주시였으며 《미래과학기술원》으로 명명하도록 해주시였다.

미래과학기술원의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은 새 기술개발목표를 높이 세우고 우리 식의 첨단기술제품들을 생산하여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를 적극 다그치기 위한 오늘의 자력갱생창조대전에서 핵심적역할을 훌륭히 수행해나갈 불타는 결의에 넘쳐있었다.

본사기자

민족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남조선에서 6.15공동선언발표 19돐을 맞으며 다채로운 기념행사들이 진행되였다. 이번 행사들을 통하여 남조선의 통일운동단체들은 민족의 자주와 단합으로 북남선언들을 철저히 리행해나갈 겨레의 의지를 다시금 힘있게 과시하였다.

서울에서 진행된 《6.15공동선언발표 19돐기념 민족자주대회》에서는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스스로가 결정한다》, 《판문점선언리행》, 《대북제재 해제하라》, 《미국은 남북합의 방해말라!》 등의 글발이 새겨진 대형프랑카드들이 펄럭이는 속에 6.12조미공동성명리행을 외면하며 북남선언리행을 가로막고있는 미국의 간섭과 방해책동을 규탄하는 분노의 목소리들이 힘있게 울려나왔다.

자주평화통일실천련대, 평화협정운동본부, 민중민주당 학생위원회를 비롯한 진보적인 운동단체들도 미국대사관앞에서 《평화협정체결! 미군철수! 민족자주실현! 미국규탄대회》를 열고 미국과 남조선당국에 보내는 공개서한을 채택한 다음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우리 대에 통일합시다!》, 《우리 민족끼리 6.15자주통일 실현하자》, 《남북공동선언을 리행하자》 등의 구호를 웨치였다.

한편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경남, 대전, 경기, 충북본부를 비롯한 각 지역본부들과 언론본부, 청년학생본부를 비롯한 단체들은 곳곳에서 반미자주대회, 성명발표, 토론회 등을 진행하고 미국의 《대북제재》반대, 《보안법》폐지, 판문점선언의 《국회》비준범국민운동전개, 금강산방문신청서제기와 같은 다양한 투쟁들을 벌리였다.

이것은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의 흐름을 악랄하게 가로막아나서고있는 내외반통일세력에 대한 민심의 분노가 날로 커가고있으며 우리 민족끼리의 힘으로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이룩해나가려는 겨레의 의지를 그 누구도 꺾을수 없음을 다시금 보여주는것이다.

원래 북남관계문제는 외세가 우리 나라를 둘로 가른 때로부터 산생되였으며 따라서 그것을 옳바로 풀어나가자면 외부세력의 간섭과 개입을 배격하여야 한다. 북남관계발전과 통일을 위해 외세의 간섭과 개입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는것은 지나온 북남관계사가 가르쳐주는 진리이다.

지난 시기에도 북과 남사이에는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훌륭하고 소중한 합의들이 적지 않게 마련되였었다. 그러나 북과 남사이에 이루어진 합의들은 그때마다 외세의 간섭과 방해책동으로 인해 응당한 결실을 이루지 못하고 불신과 대결이 다시금 심화되군 하였다.

하기에 지금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은 《남북관계발전에 저해를 주는 일체 행위들을 중단하라.》고 하면서 북남관계문제에서 자주적립장을 견지하기 위한 의지들을 피력하고있다. 남조선 각계가 주장하는것처럼 민족자주는 북남선언들의 충실한 리행을 위한 근본조건이다.

민족자주의 립장에서 북남선언들을 충실히 리행하여 평화번영의 앞길을 열어나가자면 남조선반통일보수세력의 준동을 짓부시는것도 중요하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완전히 무시하고 좋게 발전하던 북남관계를 파국에로 몰아넣은 리명박, 박근혜《정권》시기의 범죄행적은 보수패거리들이야말로 우리 민족끼리를 바라지 않으며 동족대결을 생존방식으로 하는 극악한 대결광들이라는것을 명백히 보여주고있다. 오늘도 《자한당》패거리들은 우리 민족끼리 평화번영의 새 력사를 써나가려는 겨레의 지향과 의지에 역행하여 력사적인 북남선언들을 전면 부정하면서 북남관계를 과거의 대결시대로 되돌리려고 갖은 발악을 하고있다. 이러한 보수역적무리들을 쓸어버리지 않고서는 북남선언들을 실천에 옮길수 없고 우리 민족끼리 평화와 공동번영의 길로 나아갈수 없다.

온 겨레는 민족자주와 단합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북남선언리행을 위한 투쟁을 과감히 벌려나감으로써 민족의 밝은 래일을 앞당겨오고야말것이다.

본사기자 김영진

영원한 생명선

공화국의 부강조국건설력사는 자기 힘을 믿고 자기 손으로 앞길을 개척하여온 자력, 자강의 력사이다.

일찌기 자력독립의 기치높이 항일대전을 승리에로 이끄시여 조국해방의 대업을 이룩하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국가건설과 활동의 전 행정에서 시종일관 자력갱생의 원칙을 철저히 구현하시였다.

전후 어려운 시기에 있은 일이다. 당시 일부 사회주의나라들은 조선이 쎄브에 들것을 요구하였다.

그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후 우리 나라가 기계공업이 없는 조건에서 《국제분업》에 참가한다면 쎄브성원국들에 원료나 대주어야 할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는 빈굴밖에 남는것이 없게 되고 밤낮 다른 나라에 빈쪽박을 차고 빌러다니게 될것이다, 우리가 갈 길은 우리가 안다라고 단호하게 배격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자립적민족경제의 기초를 닦는것을 중요한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시종일관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경제를 발전시키도록 하시였다.

자력갱생의 위력으로 공화국은 짧은 기간에 새 조선의 터전을 닦았고 전후 빈터우에서 복구건설의 기적을 창조하고 14년만에 사회주의공업국가를 일떠세울수 있었다.

세월은 많이 흐르고 강산도 변하였다. 하지만 공화국에서 자력갱생의 정신은 오늘도 꿋꿋이 이어지고있다.

언제인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모란봉극장과 천리마동상, 인민대학습당을 보면 우리 조국의 력사를 알수 있다고 하시였다.

그 건축물들은 서로 다른 시기에 건설되고 그 양상도 각이하다. 하지만 그 창조물들은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 해방후 빈터우에서, 전후 페허우에서 그리고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앙양기가 펼쳐지던 시기에 각각 일떠세운 건축물들로서 언제나 자주의 기치높이 자력갱생의 한길만을 걸어온 공화국의 력사를 그대로 반증하고있다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자주의 로선과 투쟁방식은 그대로 위대한 장군님의 신조였고 령도원칙이였다.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라, 우리 식대로 투쟁하라, 우리 식대로 창조하라는 주체의 요구대로 독특한 조선식사회주의를 건설해오신 어버이장군님이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그처럼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시기 정력적인 령도로 지펴주신 자력갱생의 불길은 그대로 성강의 봉화, 라남의 봉화로 타오르고 주체철, 주체비날론폭포가 쏟아지는 대경사를 안아왔으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튼튼한 토대를 닦을수 있게 하였다.

이처럼 위대한 수령님들께서는 거창한 창조와 혁명실천을 통하여 자력갱생은 불변의 진리이며 승리의 길이라는것을 확증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전원회의 보고에서 우리 나라의 조건과 실정에 맞고 우리의 힘과 기술, 자원에 의거한 자립적민족경제에 토대하여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줄기차게 전진시켜나감으로써 제재로 우리를 굴복시킬수 있다고 혈안이 되여 오판하는 적대세력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어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자력갱생과 자립적민족경제는 우리 식 사회주의의 존립의 기초, 전진과 발전의 동력이고 우리 혁명의 존망을 좌우하는 영원한 생명선이라고 강조하시였다.

오늘 전체 인민은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생산과 건설에서 비약과 기적을 창조하고있다.

자체의 힘과 기술로 새형의 뜨락또르와 자동차, 무궤도전차와 궤도전차를 만들어내고 현대적인 공공건물들과 산업시설들을 비롯하여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도모하는 창조적재부들을 끊임없이 마련하고있다.

자력갱생만이 살길이고 부강번영의 영원한 생명선이라는것을 공화국의 현실은 보여주고있다.

하기에 제22차 평양봄철국제상품전람회에 참가한 로씨야의 한 기업가는 자기의 소감을 이렇게 터놓았다.

《조선은 외부세력의 제재를 오래동안 받아오고있다.

서방으로부터 제재를 받는 나라들치고 조선처럼 시간적으로 오래면서도 강도가 높은 제재를 받는 나라는 없다. 그 정도의 제재면 웬만한 나라들은 견디지 못하였을것이다.

하지만 그런 속에서 조선인민은 자체로 훌륭한 상품들을 만들어내고있으며 이렇게 국제상품전람회도 손색없이 진행하고있다.

조선은 자력갱생으로 흥하는 보기 드문 나라이다.》

남보다 앞서면 강자가 되고 뒤떨어지면 약자로 밀려나는 국력경쟁의 시대인 오늘날 자력갱생의 기치를 높이 들고나가는 길이 강성번영을 앞당기는 지름길이라는것을 공화국은 기적적이고 비약적인 현실로 보여주고있는것이다.

김춘원

숭고한 동포애와 고결한 의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지난 12일 남조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리희호녀사의 유가족들에게 조의문과 조화를 보내시였다.

그이께서는 조의문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리희호녀사가 서거하였다는 슬픈 소식에 접하여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리희호녀사가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함께 온갖 고난과 풍파를 겪으며 민족의 화해와 단합,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기울인 헌신과 노력은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길로 나아가고있는 현 북남관계의 흐름에 소중한 밑거름이 되고있으며 온 겨레는 그에 대하여 영원히 잊지 않을것이라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리희호녀사의 유가족들에게 조의문과 조화를 보내신 소식은 남녘의 각계층 인사들과 인민들의 깊은 감동을 자아내였다.

유가족들은 **김정은**위원장께서 조의문과 조화를 보내주신것은 최대의 례의를 갖춘것이라고 하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하였다. 남측의 여러 인사들과 사회계도 한결같이 **김정은**위원장께서 최대의 례의를 갖추어 리희호녀사를 추모하시였다고 감명을 토로하였다.

이번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리희호녀사의 유가족들에게 보내신 조의문과 조화에는 진정으로 나라의 통일을 원하고 평화번영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손잡고나가시는 그이의 한없이 뜨거운 민족애와 넓은 포용력, 숭고한 덕망이 어리여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몇해전에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 5년이 되는것과 관련하여 리희호녀사와 유가족들에게 조전과 화환을 보내시여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조전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민족의 화해와 단합, 나라의 통일을 위해 기울인 노력과 공적을 잊지 않을것이며 그가 남긴 업적은 후세에 길이 전해질것이라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덕망과 고결한 의리에 감복한 유가족들과 김대중평화쎈터 관계자들은 북의 지도자님께서 김대중 전 대통령과 유가족들, 남측의 6.15관계자들을 잊지 않으시고 친히 존함이 모셔진 화환과 조전을 보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한다고 하였다.

남조선의 주요 언론들도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최고의 례우표시》, 《선대수령의 유훈사업을 잘 계승하겠다는 의지표명》이라고 전하였었다.

인덕은 천하를 울린다고 하였다.

민족공동의 번영과 통일을 위한 길에 생의 자욱을 남긴 사람들을 높이 내세워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민족애와 의리는 겨레의 심금을 뜨겁게 해주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은 대해같은 사랑과 덕망, 크나큰 포용력과 친화력으로 온 겨레를 감화시키며 대단합의 넓은 품에 안아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길로 이끄시는 절세의 애국자, 민족의 어버이이시다.

본사기자 리 설

인재육성과 과학기술발전을 중시하시여

인재양성의 첫 대학

나라가 갓 해방된 주체34(1945)년 11월 어느날이였다.

교육부문의 일군들을 만나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우리는 새 조국건설에 필요한 간부들을 하루빨리 양성하여야 한다고, 그러기 위하여서는 초등학교와 중등학교들을 많이 세우는것과 함께 대학들을 세워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런데 지금 우리 나라의 형편에서는 많은 대학을 한꺼번에 세울수 없다고, 우리는 종합대학부터 먼저 내와야 하겠다고 하시였다.

계속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종합대학을 창설하는것은 오늘 우리 나라의 실정에서 절실히 필요한것이다, 종합대학을 창설하면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일할 간부들을 동시에 양성할수 있다, 또한 종합대학을 먼저 창설하면 그것을 토대로 하여 앞으로 빠른 기간에 많은 대학을 세울수 있을것이다, 종합대학은 우리 나라의 튼튼한 민족간부양성기지로 될것이며 앞으로 내올 대학들의 모체로 될것이라고 하시였다.

해당 부문에서는 그때 실정에서 종합대학을 내오는것에 대하여서는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고있었다. 설사 종합대학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우선 단과대학을 내오고 운영하면서 토대를 구축한 다음에 종합대학을 설립하게 될것이라고 생각하여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각 분야의 민족간부를 다같이 육성할수 있는 종합적인 민족간부양성기지부터 창설하도록 하신것은 긴박한 인재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방책이였다.

첨단을 돌파하여야 한다

주체99(2010)년 새해아침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지나간 해를 돌이켜보시며 CNC기술의 명맥을 확고히 틀어쥔것이야말로 지난해 우리가 이룩한 수많은 성과들가운데서도 가장 특기할 성과라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CNC기술의 세계적수준을 기어이 돌파하여 우리 식의 CNC체계를 개발하고 CNC기계를 마음먹은대로 생산해내는데 성공하였다고 하시였다.

이어 장군님께서는 CNC기술은 첨단과학기술의 한 분야이다, CNC기술도 포함한 첨단과학기술분야들이 개척되면서 인류는 인간의 지식에 토대하여 발전하는 지식경제시대에 들어섰다고 하시면서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오늘 첨단에서 뒤떨어지면 남의 기술의 노예가 될것이라고, 첨단을 돌파하지 못하고 강성대국건설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고, 첨단을 돌파하자면 일군들부터 CNC기술을 비롯한 첨단기술을 알아야 하며 첨단을 돌파하려는 높은 리상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본사기자

다함없는 흠모의 마음을 담아

장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 주체103(2014)년 1월 쿠웨이트 알라미아건설회사 총사장(수리아사람)이 올린 선물이다.

그는 강철의 담력과 배짱을 지니시고 사회주의위업을 령도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마음을 담아 자신의 지성이 깃든 선물을 올리기로 생각하고 유명한 공예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선물을 마련하였다.

일명 《정의의 보검》으로 불리우는 장검은 힘과 용맹, 건강과 장수, 자유와 평화를 상징하는것으로서 정의의 투쟁에 나선 사람에게만 드리는것으로 되여있다고 한다.

선물은 금속제에 금도금을 하고 칼집량면에는 각각 5개씩, 손잡이날밑 중심부분의 량면에는 각각 1개씩 보석을 박아넣었다.

칼날에는 조국수호의 의지를 반영한 글이, 장검의 포장함뚜껑 안쪽중심에는 쿠웨이트지도우에 국장을 형상하고 《알라미아건설회사 총사장 화씨 하킴 2014. 1. 8》이라는 글이 씌여져있다.

본사기자

인민의 꿈과 리상이 현실로 꽃펴나는 나라

외국인들의 반향

인민의 존엄높은 삶과 행복이 꽃펴나는 공화국의 현실은 외국인들속에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있다.

베네수엘라공산주의청년대표단 단장 엑또르 로드리게스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인민들이 리용하게 될 유희기재까지 직접 타보시면서 그 안전성을 확인하시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

세상에 인민을 위한다고 하는 국가지도자들은 많아도 그이처럼 인민을 끝없이 사랑하시는분을 력사는 알지 못하고있다.

절세위인의 품속에서 사는 조선인민의 행복에 넘친 모습을 보면서 인민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 모든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조선식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페부로 느끼게 되였다.

조선이야말로 세상에서 제일 좋은 인민의 락원이다.

인민을 위함이라면 저 하늘의 별도 따오시려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최고령도자로 모신 조선인민은 사회주의강국을 반드시 일떠세울것이다.

수리아인민회의대표단 단장 나즈다트 안조르는 조선의 여러곳을 방문하고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하면서 격동된 심정을 이렇게 피력하였다.

김정은각하께서는 하나의 기념비적창조물을 일떠세워도 항상 인민의 리익을 앞에 놓으신다.

현대적인 병원들과 문화후생시설들에서 평범한 근로자들이 무료로 치료를 받고 문명을 누리고있다.

리용자들의 편의를 최대로 보장해주는 원칙에서 모든것이 꾸려지고 운영되고있다니 놀랍기만 하다.

인민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는 조선의 당과 정부의 시책에 감동을 금할수 없었다.

위대한 령도자의 품속에서 사는 조선인민처럼 복받은 인민은 이 세상에 없을것이다.

선군정치연구 네팔문학연단 위원장 쏭코리 바로띠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적대세력들의 제재압살책동속에서도 자력갱생의 위력으로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하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을 다그치고있는 조선의 모습은 정말 놀라움을 자아낸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상과 위업을 빛나게 계승해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펼치시는 인민사랑의 정치가 빛나는 결실을 가져오고있다.

조선의 눈부신 발전은 서방의 반공화국선전의 허황성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조선이야말로 인민의 꿈과 리상이 현실로 꽃펴나는 나라이다.

본사기자

노래로 보는 인민의 마음

《불타는 소원》

주체101(2012)년에 창작된 가요 《불타는 소원》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를 따르며 그이의 안녕을 바라는 인민들의 념원을 노래한 명곡이다.

가사에서는 인민들의 행복의 요람을 지켜 지칠줄 모르는 열정으로 애국헌신의 낮과 밤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로고를 생각하는 인민들의 뜨거운 마음과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여 끝없이 창창할 조국의 미래에 대한 굳은 확신을 생활적인 시어에 담아 감명깊게 보여주고있다.

이 한밤도 먼길 가실 원수님 생각하며
우리 마음 자욱자욱 간절히 따라섭니다
우리 운명 우리 행복 원수님께 달려있기에
아침저녁 소원은 하나 원수님의 안녕입니다

공화국인민들에게는 누구나 간직하고있는 하나의 공통적인 소원이 있다.

그것이 바로 경애하는 원수님의 안녕과 건강이다.

새벽문을 남먼저 여시고 깊은 밤 쪼각달을 벗삼아 원수님께서는 인민을 위한 현지지도의 길을 걷고걸으신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소원은 인민을 더 행복하게, 더 잘살게 하시려는것이여서 그 길에서는 고생도 락으로 여기시고 삶의 멋으로 간주하신다.

새로 만든 궤도전차를 타고 달리느라면 이제 우리가 만든 궤도전차와 무궤도전차들이 거리를 누비며 달릴 때에는 멋있을것이라고, 인민들이 정말 좋아할것이라시며 환히 웃으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모습이 어려오고 제약공장을 찾으면 인민들의 건강증진과 병치료, 예방에 필요한 여러가지 의약품생산을 정상화하여야 한다고 하신 그이의 간곡한 당부가 울리여온다.

지난해 5월과 8월에 이어 10월에 또다시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명사십리전역에 인민의 웃음소리, 행복의 노래소리가 울려퍼질 그날을 하루빨리 앞당기기 위해 과감히 돌진해나가자고 하시였다.

인민의 웃음소리, 행복의 노래소리!

바로 이것이 원수님의 소원이기에 인민들은 그이를 《우리 원수님》이라 부르며 이른아침에 잠을 깨도, 깊은 밤 잠에 들 때에도 그이의 헌신의 자욱자욱에 마음을 따라세우고 그이의 안녕을 간절히 바라고있는것이다.

수령님과 장군님의 사랑을 이어주시며
인민위한 한길만을 언제나 걸으십니다
우리 운명 우리 행복 원수님께 달려있기에
천만자식 소원은 하나 원수님의 안녕입니다

어머니의 품은 열두자식이 안기여도 모자라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천만자식을 품에 안고 그 한자식한자식 모두를 사랑과 정으로 따뜻이 보살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그이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랑을 그대로 인민들에게 부어주신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믿고 전체 인민이 앞날을 락관하며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를 부르던 시대가 지나간 력사속의 순간이 아닌 오늘의 현실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헌신분투할것이라고 인민앞에 맹약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폭우가 쏟아지고 찬눈이 내리는 날, 먼지바람이 부는 날도 가리지 않으시고 인민을 더 잘살게 하시려고 헌신의 낮과 밤을 이어가고계신다.

계획을 넘쳐수행했다고 말씀올리는 방직공의 손도 잡아주시고 랭동창고바닥에도 앉으시여 만선의 배고동소리를 울린 어로공들과 사진도 찍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환하신 모습은 인민들이 오늘도 잊지 못하는 수령님과 장군님의 인자하신 모습그대로이다.

하기에 머리에 흰서리가 내린 로인도 경애하는 원수님을 뵈오면 그 품에 안겨들고 아이들도 원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따사로운 그 품에 안겨드는것이다.

온 나라 인민들이 오직 하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건강하시기만을 바라고 바라는것이다.

친근하신 그이 모셔 강산은 따뜻하고
영명하신 그이 계셔 미래는 창창합니다
우리 운명 우리 행복 원수님께 달려있기에
하늘땅도 소원하는 원수님의 안녕입니다

절세의 위인을 모시여 오늘 공화국의 국력은 최대로 강화되고 인민의 자주적존엄과 긍지는 하늘에 닿고있다.

원수님 열어주신 평화번영의 시대에 이 강산은 더욱 따뜻해지고 온 겨레가 신심과 락관에 넘쳐 민족의 밝은 래일을 마중가고있다.

우리 운명, 우리 민족의 밝은 미래는 원수님께 달려있기에 그이의 쉬임없는 애국헌신의 발걸음에 온 나라의 남녀로소가 자신들의 마음과 걸음을 따라세우며 경애하는 원수님의 건강과 안녕을 간절히 소원하고있는것이다.

본사기자 리경월

북남관계문제의 주인은 우리 민족

력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을 철저히 리행하여 북남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나라의 통일과 평화번영을 이룩해나가려는것은 온 민족의 한결같은 지향이고 념원이다. 이것은 또한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국제사회의 한결같은 요구이기도 하다.

온 겨레의 지향과 념원, 국제사회의 요구에 맞게 관계개선과 평화의 흐름을 이어가자면 그 무엇에 앞서 민족의 총의가 집약된 북남선언들을 고수하고 철저히 리행해나가야 한다.

그러자면 자주정신을 흐리게 하는 사대적근성과 민족공동의 리익을 침해하는 외세의존정책에 종지부를 찍고 모든것을 북남관계개선에 복종시켜야 한다.

력사적인 북남선언들은 북남관계문제, 민족문제해결에서 민족자주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해야 한다는데 대해 밝히고있다.

북남관계개선은 그 누구의 승인을 받고 하는것이 아니며 누구의 도움으로 이루어지는것도 아니다. 북남관계문제의 당사자는 어디까지나 우리 민족이며 그것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켜나갈수 있는 힘과 지혜도 우리 민족자신에게 있다.

지난해에 이룩된 북남관계에서의 극적인 사변들이 이것을 잘 말해주고있다.

지난해 세차례에 걸치는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이 이루어지는 속에 북과 남의 체육인들이 국제경기대회에 공동진출하여 민족의 기개를 남김없이 떨치였으며 예술인들은 평양과 서울을 오가며 민족적화해와 통일열기를 뜨겁게 고조시켰다. 이와 함께 여러가지 장애와 난관을 과감하게 극복하면서 철도, 도로, 산림, 보건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협력사업들이 추진되여 민족의 공동번영을 위한 의미있는 첫걸음을 내디디게 되였다.

북남관계에서 일어난 놀라운 전변의 모습은 우리 민족끼리 서로 마음과 힘을 합쳐나간다면 조선반도를 가장 평화롭고 길이 번영하는 민족의 참다운 보금자리로 만들수 있다는 확신을 온 겨레에게 안겨주었다.

북과 남이 함께 손잡고 북남관계를 지속적이며 공고한 화해협력관계로 전환시키고 온 겨레가 한결같이 소원하는대로 평화롭고 공동번영하는 새로운 민족사를 써나가려는것은 공화국의 확고부동한 의지이다.

하지만 손벽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일방의 노력만으로는 평화번영시대를 추동할수 없다.

민족의 리익을 옹호하는 당사자로서의 책임을 다할 생각은 하지 않고 외부세력의 눈치를 보면서 좌왕우왕하다가는 언제 가도 북남관계를 겨레의 지향에 맞게 발전시켜나갈수 없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바란다면 북남관계를 발전시키는데 그가 누구든지 실천행동으로 기여하여야 한다.

민족자주의 립장에 확고히 서서 력사적인 북남선언들을 철저히 리행해나가는 길에 북남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평화번영, 통일의 밝은 래일이 있다.

본사기자 김철민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민심의 반영

지난 15일 남조선의 《자주통일평화번영련대》가 제정당 사회단체들에 판문점선언의 《국회》비준동의를 위한 범국민운동을 요청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단체는 성명에서 《력사적인 6.15공동선언발표 19주년을 맞이하며 민족공동의 자주통일과 평화번영강령인 판문점선언의 국회비준동의를 즉각 실현하고 남북공동선언완수를 위한 범국민운동을 벌려나갈것을 제정당단체에 요청한다.》고 하면서 《판문점선언의 국회비준동의로써 법적효력을 갖게 하고 제도화하는것은 이 위업실현을 위한 선결핵심과제》라고 호소하였다.

북남선언들을 철저히 리행하여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그날을 하루빨리 앞당겨오려는 남녘인민들을 비롯한 온 겨레의 지향과 열망을 반영한 애국애족의 호소라고 해야 할것이다.

다 아는바와 같이 판문점선언은 북과 남이 과거의 대결시대를 끝장내고 민족적화해와 단합, 평화번영과 통일의 길로 함께 나아갈것을 전세계앞에서 확약한 력사적인 선언이다. 판문점선언의 정당성은 지난 한해동안 북남관계와 조선반도정세에서 일어난 극적인 전환이 잘 말해주고있다. 이 선언과 함께 9월평양공동선언을 성실히 리행해나갈 때 조선반도에 더 밝은 미래가 오게 된다는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하기에 남녘의 각계층 인민들과 여야정당들은 판문점선언의 《국회》비준을 강력히 요구하고 그것을 성사시키기 위해 적극 노력해왔다.

그런데 《자한당》의 반대로 하여 이 력사적인 선언이 채택된지 1년이 더 지난 오늘까지도 남조선《국회》에서 비준동의를 받지 못한 상태에 있는것이다.

동족대결의식이 골수에 꽉 차있는 《자한당》을 비롯한 보수패거리들은 민족의 지향과 북남관계변화의 흐름을 외면하고 오직 권력야욕에만 혈안이 되여 북남이 합의한 선언들을 한사코 부정해오고있으며 갖은 비난으로 그 리행에 장애만을 조성하고있다.

이것은 민족이 어떻게 되든 저하나의 당리당략만을 추구하면서 민의를 짓밟고 력사를 대결의 과거에로 되돌려보려는 범죄적인 망동으로서 절대로 용납될수 없는것이다.

이것을 잘 알기에 남조선인민들은 판문점선언의 《국회》비준동의를 위한 범국민운동을 벌리자고 호소하는 성명도 발표하게 된것이다.

조선반도에 모처럼 마련된 북남관계개선과 평화번영의 흐름을 줄기차게 이어나가자면 북남선언들을 철저히 리행하는외에 다른 길은 없다.

그러자면 북남선언들을 부정하고 그 리행에 갖은 장애만을 조성하는 범죄적인 망동들을 추호도 용납치 말아야 한다.

온 겨레가 북남선언들을 존중하고 선언의 고수리행을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섬으로써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조국통일위업을 힘차게 떠밀어가야 할것이다.

장명혁

북남선언리행을 위한 남조선 각계의 통일운동

남조선 각계층이 력사적인 4.27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리행을 위한 통일애국투쟁에 적극 떨쳐나서고있다.

올해에 들어와서만 하여도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련대를 비롯한 진보운동세력들이 《화해와 평화의 봄》 등 새로운 단체들을 련이어 결성하고 통일애국운동을 활발히 전개하고있다.

단체들은 서울의 광화문광장을 비롯하여 로동현장, 대학들에서 기자회견과 시국토론회들을 가지고 력사적인 북남수뇌상봉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 대조선제재해제의 필요성을 해설하였으며 북바로알기토론회, 평양의 발전상을 보여주는 사진전시회, 북미술작품전시회도 진행하였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를 비롯한 통일운동단체들은 남북관계개선과 평화를 반대하는 세력들을 통일을 바라는 국민의 단결된 힘으로 저지시키겠다고 하면서 이를 위한 투쟁에 앞장설것을 궐기해나섰다.

민중당과 국민주권련대 등 진보운동세력들은 무엇보다 민족자주, 민족자결의 기치아래 남과 북이 단결하여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을 리행하기 위한 대책적문제들을 론의하고 투쟁에 진입하였다.

로동운동단체들은 기자회견과 집회를 통해 시민사회계와 련대운동을 강화하여 평화와 통일을 가로막고있는 분렬적페들을 청산하기 위한 투쟁을 강도높게 벌려나갈것을 선언하였다.

그 실천행동으로 3.1인민봉기 100돐, 판문점선언발표 1돐을 맞으며 각계층은 집회들을 가지고 《평화의 새시대, 밝은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가자!》, 《분단을 넘자! 겨레를 잇자!》, 《자주통일 새시대, 투쟁없이 오지 않는다. 판문점선언 리행하라. 대북제재 해제하라!》는 구호를 전면에 내세울것과 앞으로 주요계기때마다 광범한 대중이 참가하는 선언리행을 위한 투쟁에 떨쳐나설것을 선언하였다.

6.15공동선언발표 19돐을 계기로 통일운동단체들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의 통일운동은 더욱 적극화되였다.

자주통일, 평화번영운동련대 등 통일운동단체들은 4.27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의 리행이 가지는 중요성과 의의에 대해 선전하고 선언리행을 위한 투쟁에 떨쳐나설것을 호소하였다.

단체들은 지난해 력사적인 북남수뇌상봉들과 판문점선언, 9월평양공동선언채택으로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로운 리정표가 마련되였다고 하면서 올해 우리 민족앞에는 북남선언들의 기치밑에 단결하여 투쟁하여야 할 과업이 나서고있다고 강조하였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 언론본부, 대전본부 등은 토론회와 강연회, 집회를 가지고 북남선언리행을 가로막는 미국의 간섭행위와 대조선제재책동, 보수패당의 동족대결망동을 폭로하면서 평화는 외세가 가져다주지 않으며 오직 우리 민족이 주인이 되여 그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전국농민회총련맹을 비롯한 진보적인 운동단체들도 6.15공동선언발표 19돐기념 민족자주대회와 《통일한마당》행사 등 기념행사들을 통해 민족화해와 평화번영의 흐름을 줄기차게 이어나갈 결의를 표명해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정계에서는 시민사회단체들과 공동으로 기념행사를 진행하였으며 인천시《의회》가 8일부터 21일까지 서해평화특별기간을 선포하는 등 지방자치단체들도 다양한 행사들을 추진하면서 북남관계개선분위기를 조성하였다.

단합된 힘으로 민족화해와 평화번영, 자주통일의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열기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높아가고있다.

[조선중앙통신]

북남선언리행을 요구하는 남조선인민들

허울만 바꾼 북침전쟁연습

남조선에서 오는 8월 중순에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을 대신하는 《동맹 19—2》군사연습이 벌어진다고 한다.

이것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온 겨레와 국제사회의 지향과 기대에 대한 란폭한 도전이며 과거의 대결과 전쟁위기를 다시 조성하려는 무분별한 도발행위이다.

조선반도의 군사적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위험을 해소하는것은 민족의 운명과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이며 우리 겨레의 평화롭고 안정된 삶을 보장하기 위한 관건적인 문제이다.

하기에 지난해 북과 남은 력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 북남군사분야합의서를 통해 군사적긴장상태의 완화와 전쟁위험의 해소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나간다는것을 내외에 엄숙히 확약하였다.

그러나 남조선에서는 이와는 반대로 각종 명목의 군사적도발행위들이 그치지 않고 계속되고있다.

미국이 1기병사단 3기갑려단을 《순환배치》의 명목으로 남조선에 끌어들이는것도 그 하나의 실례이다.

합동군사연습이 북남선언들과 군사분야합의서를 부정하는 행위로 된다는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동맹 19—2》합동군사연습을 《전시작전통제권반환을 위한 검증연습》, 《저강도훈련》이라고 광고하면서 그 침략적정체를 가리워보려 하고있지만 그것은 불뭉치를 보자기로 감싸겠다는것과 같은 어리석은짓이다.

이 훈련이 종전의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을 그대로 재현하고있는것만 봐도 그 침략적성격을 잘 알수 있다.

《을지 프리덤 가디언》전쟁연습의 뿌리는 정전직후인 1954년부터 시작된 《포커스 렌즈》이다. 그것이 1976년부터 남조선군단독으로 벌리던 《을지》군사연습과 통합되여 《을지 포커스 렌즈》연습으로 변신하였으며 2008년부터는 《을지 프리덤 가디언》으로 명칭이 바뀌여지는것과 동시에 그 침략적성격이 더욱 강화되였다.

이처럼 《을지 프리덤 가디언》연습은 남조선미국합동군사연습들가운데서도 력사가 가장 오랜 악명높은 연습이다.

이 연습에는 해마다 남조선강점 미군과 해외로부터 파견되는 미증원부대, 남조선의 륙해공군은 물론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방대한 인원이 동원되군 하였다.

내외호전광들은 지금껏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을 통해 공화국의 전략적거점들에 대한 지상과 해상, 공중으로부터의 중장거리정밀타격과 신속기동타격을 가상한 각종 훈련들을 실전의 분위기에서 벌려왔다.

력사적사실에 비추어보아도 《을지 프리덤 가디언》연습을 대체하여 진행한다는 《동맹 19—2》합동군사연습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북침공격연습인가 하는것은 너무나 명백하다.

이미 중단하게 된 북침합동군사연습들을 허울만 바꾸어쓰고 강행하면서 화약내를 계속 피워대는 남조선당국이 《평화와 대화》를 입이 아프도록 떠들어대도 누가 곧이 듣겠는가.

남조선과 그 주변에서 꼬리를 물고 벌어지는 북침합동군사연습의 불꽃이 정세를 어디로 끌고갈지 예측할수 없다.

본사기자 주광일

주제넘은 행세질

얼마전 남조선당국자가 핀란드와 노르웨이, 스웨리예를 행각하면서 북남관계문제와 조선반도핵문제등에 대해 이러저러한 소리들을 늘어놓았다고 한다.

그는 북남관계문제와 관련하여 베를린에서 발표한 《한반도평화프로세스》정책이 북의 《핵미싸일도발》을 중지시키고 북남사이의 군사적긴장을 완화시켰다고 했는가 하면 북과 남이 《접경위원회》를 내오고 접경지역에서의 피해부터 우선 해결해야 한다, 동북아시아나라들과 미국이 참가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만들고 그것을 《에네르기, 경제공동체》, 《다자안보공동체》로 확대발전시키려는 《구상》을 가지고있다는 소리도 늘어놓았다.

현실에 대한 기만과 자기 처지도 모르는 주제넘은 발언이 아닐수 없다.

지난해 민족분렬사상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는 극적인 변화가 공화국의 주동적이며 과감한 조치들에 의해 일어난것이라는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한반도평화프로세스》와 그 누구의 《도발중지》를 떠들며 마치 저들의 발기와 주도에 의해 북남관계에서 극적인 변화가 일어난듯이 여론을 내돌리는것은 북과 남이 합의하고 온 세상에 선포한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의 기본정신과 의의를 부정하는 행위가 아닐수 없다.

앞에서는 동족과 손을 맞잡고 돌아앉아서는 딴소리를 하는것은 책임있는 정치가의 자세가 아니다.

오늘 북남관계가 민족의 일치한 기대와 열망과는 어긋나게 좀처럼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있는것은 지금처럼 남조선당국이 해야 할 일은 뒤전에 밀어놓고 쓸데없는 시비질이나 하며 다니기때문이다.

인도주의지원과 같은 초보적인 북남협력사업마저 사사건건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만 하는 처지에 그 무슨 《동아시아철도공동체》와 《남북접경위원회》를 내와야 한다고 하는것은 현실기만이고 뼈속까지 배인 친미사대적근성의 발로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

제대로 되자면 남조선당국이 북남관계개선의 주인은 다름아닌 우리 민족자신이라는 자각을 가지고 마땅히 자기가 해야 할 일부터 하는것이다.

조선반도핵문제역시 마찬가지이다.

이번에 남조선당국자는 핵문제와 관련하여 《북의 평화를 지켜주는것은 핵무기가 아니라 대화이다.》, 《대화의 길로 간다면 누구도 북의 체제와 안전을 위협하지 않을것이다.》고 했는가 하면 지어 《대북제재가 해제되려면 북비핵화에서 실질적진전이 있어야 한다.》고 미국이 하는 말을 앵무새처럼 되받아 외우기까지 하였다.

남조선당국자의 말에서 풍겨오는것은 그 자신이 현실을 판별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뿐이다.

문제해결에서 기본은 대화와 협상이다.

지난해 온 세계를 끓게 한 6.12조미공동성명이 이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이것은 온 세계가 공인하는바이다.

이런 엄연한 현실을 외면하고 주제넘게 이러쿵저러쿵 하는것은 《제재만능주의》를 떠드는 미국의 대조선압박에 추종하는 반민족적행위이다.

이런 식으로 미국상전의 비위나 맞추고 《북의 대변인》, 《종북정권의 수장》이라는 보수패당의 비난공세를 피해보려 한다면 심히 잘못된 생각이다.

남조선당국은 더이상 오지랖넓은 《중재자》, 《촉진자》행세를 할것이 아니라 민족의 리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되여야 한다.

본사기자 박철남

동족대결을 고취한 《기념》놀음

최근 남조선에서 6.25를 계기로 반공화국대결광대극들이 벌어졌다.

24일 6.25전쟁 69년을 맞으며 청와대에서 열린 남조선군 및 《유엔군》참전유공자초청오찬간담회에서 남조선집권자는 공화국을 걸고드는 매우 온당치 못한 발언을 하였다.

한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을 비롯한 보수정당들은 《6.25전쟁은 최악의 전쟁이다.》, 《목숨으로 지킨 나라를 최선을 다하여 수호하겠다.》며 기염을 토하였다.

이런 속에 26일 남조선의 해군작전사령부는 부산에서 그 무슨 《해전승리 69주년 기념행사》라는 광대극을 벌려놓고 반공화국대결분위기를 고취하였다.

이러한것들이 민족적화해와 조선반도의 평화번영을 바라는 온 겨레의 지향과 대세의 흐름에 배치되는 용납 못할 동족대결망동이라는것은 재론할 여지가 없다.

남조선당국이 3년간의 조선전쟁으로 북과 남의 우리 겨레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 재난을 들씌운 외세에게 《감사의 뜻》을 표시하며 동족상쟁의 비극을 《기념》한것은 온전한 사고와 정신이 마비된자들의 해괴망측한 추태라고밖에 달리 표현할수 없다.

더우기 당국자까지 전면에 나서서 《북의 침략》을 운운하며 미국과 함께 조선전쟁을 도발한 저들의 죄악을 부인하고 전쟁을 선동하는 행태를 부린것은 경악할노릇이다. 력사는 그 무엇으로써도 가리울수 없고 외곡할수도 없다.

《북조선에 대한 공격계획은 이미 결정되였다. 이 계획이 실행에 옮겨질 때까지는 그리 많은 시간이 남아있지 않다. 공격은 우리측에 의하여 개시될것이지만 그를 위해서는 대의명분을 세울 구실을 준비해두지 않으면 안된다.》

1950년 1월 당시 미군사고문단 단장이였던 로버트가 남조선의 여러 장관들앞에서 한 말이다. 이것은 지난 조선전쟁의 방화범이 과연 누구였는가를 명백히 실증해주는 한 례이다.

미국상전을 개여올리며 반공화국대결광대극을 요란하게 펼친다고 하여 60여년전 저들의 침략범죄가 가리워지는것이 아니다.

문제는 대결의 과거와 결별하고 화해와 단합의 새시대로 나아가자고 온 민족앞에 확약하고서는 상대방의 면전에서 이따위 대결광대극을 벌려놓은 저의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것이다.

남조선당국이 벌려대는 대결행태는 리명박, 박근혜역적패당과 마찬가지로 지난 조선전쟁에서의 쓰디쓴 참패와 수치를 만회하고 미국과 야합하여 이 땅에 침략전쟁의 참극을 재현시켜보겠다는것과 조금도 다를바 없다.

지금은 공화국이 보병총으로 침략의 괴수가 휘두르던 원자탄과 맞서 싸웠던 1950년대와 다르다. 오늘 공화국은 그 어떤 전쟁에도 대처할수 있는 만단의 준비가 다 되여있다.

남조선당국이 현실을 외면한채 상대방을 자극하는 반공화국대결광대놀음에 매달리며 전쟁열을 고취하여 얻을것이란 온 민족의 저주와 배격, 수치스러운 파멸뿐이다.

본사기자 김응철

남조선시민단체 미군장갑차에 의해 무참히 살해된 두 녀학생들을 추모하는 행사 진행

남조선언론들의 보도에 의하면 지난 13일 시민단체인 《효순미선평화공원조성위원회》가 경기도 양주시 효촌리에서 신효순, 심미선학생들을 추모하는 추모제와 평화공원착공식을 진행하였다.

이날 추모제참가자들은 17년전 미군장갑차에 의해 너무나도 어린 나이에 생을 마친 두 녀학생들을 추모하였다.

단체는 《효순미선평화공원》조성은 두 녀학생들의 억울한 죽음을 영원히 잊지 않고 진상규명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설명하였다.

참가자들은 사고현장에 두 녀학생들을 추모하는 시민추모비를 세우고 《미군은 사죄하라!》 등 미국을 규탄하는 구호를 웨쳤다.

이날 착공식을 가진 《효순미선평화공원》은 오는 10월에 완공될 계획이라고 한다.

본사기자

사람잡이에 이골이 난자가 권력을 꿈꾼다

남조선에서 《자한당》대표 황교안에 대한 비난여론이 날로 높아가고있다.

이미 여론을 기만하기 위한 《민생대장정》놀음을 벌린 황교안은 또다시 《100일정책투쟁》에 대해 고아대며 정쟁광풍을 더 요란하게 일구고있다.

이달초에도 황교안은 당내에 당국의 경제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한다는 미명하에 그 무슨 《2020경제대전환위원회》라는것을 조작하였다. 그러면서 《위원회가 래년 총선과 더 나아가 대선까지 당을 이끌 견인차가 될것》이라고 너스레를 떨었다.

이를 두고 남조선의 여론들은 위원회가 황교안의 《대선조직》을 방불케 한다고 평하고있다.

말타면 견마잡히고싶다고 당대표자리에 올라앉은 황교안이 로골적으로 권력야욕을 드러낸것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문제는 정치미숙아인 황교안이 자기의 정치적야욕을 남조선인민들이 낱낱이 꿰뚫어보고있다는것을 잊고있다는데 있다.

세상이 다 아는바와 같이 황교안은 박근혜의 특등심복으로서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의 감투를 쓰고 사람잡이로 피칠갑을 한 파쑈광이다.

오래전부터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공안부 검사노릇을 한 황교안은 수많은 통일애국인사들과 진보적단체들을 야수적으로 탄압해왔으며 일명 공안수사의 교과서라고 불리우는 《국가보안법해설》과 《집회시위법해설》을 쓴것으로 하여 《미스터보안법》으로 불리웠다.

이런 파쑈적기질로 하여 박근혜의 눈에 들어 법무부 장관으로 된 황교안은 리석기내란음모사건을 조작하고 통합진보당 성원들에게 중형을 들씌우고 당을 강제해산시키는 현대판 마녀사냥도 서슴지 않았다.

서울시공무원간첩사건과 전교조말살사건, 《자주민보》폐간사건 등을 직접 연출한 폭군도 바로 황교안이다.

황교안이 법무부 장관자리에 올라앉은 첫해에 《보안법》에 의해 기소된 사람이 100명을 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자의 파쑈적기질을 잘 알수 있다.

사람잡이한 대가로 출세의 맛을 들인 황교안은 《국무총리》의 자리에 들어앉자마자 남조선에 무시무시한 탄압선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켰다.

박근혜의 반인민적악정을 반대하고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투쟁에 앞장섰던 시민단체들을 탄압하는 등 파쑈적기질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독재통치에 항거하여 떨쳐나선 각계층 인민들의 민중총궐기투쟁에 수많은 경찰들을 동원하고 최루액을 섞은 물대포를 사정없이 내쏘아 일흔에 가까운 농민을 무참히 살해하도록 한자도 황교안이다.

사람잡이에 이골이 난 교형리였기에 2016년 박근혜탄핵을 요구하는 평화적인 초불투쟁세력을 무력으로 진압하기 위한 음모까지 꾸미였다.

이런 살인악마가 《자유한국당》대표자리를 발판으로 권력의 감투를 뒤집어쓰기 위해 혈안이 되여 날치고있는것이다.

정치와 경제에는 무능하고 사람잡이기질밖에 없는 황교안이 정계무대에서 계속 날치게 내버려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남조선인민들이 입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리철민

황 당 한 교 안

력사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의로운 길에서 이름을 빛내이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그에 역행하는 추물들도 있어 인민의 지탄을 받는다.

《자한당》대표 황교안이 바로 그렇다.

황교안으로 말하면 30년의 공안검사경력에다 《유신》악녀밑에서 법무부 장관, 《총리》, 《대통령》권한대행까지 한것으로 하여 보수꼴통들가운데서는 《명성》이 자자하다.

그래서인지 황교안이 하는 짓거리들을 보면 반민주, 반민생, 반민족, 반통일, 반평화망동들뿐이다.

그것도 신통히 제 이름자와 같이 놀아대여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있다.

무엇보다 언행이 황당하고 해괴하기 그지없다.

한개 정당의 대표라면 현실감각과 정치지능이 있어야 할것이다.

그런데 그는 얼마전에 아들이 《점수가 모자랐지만 5개 기업에서 입직합격서를 받았다.》, 《내국인과 외국인의 임금이 같은것은 불공정하니 법개정을 하겠다.》고 떠들어 《정치인으로서 동떨어진 현실인식을 보여주는것》, 《청년들에게 절망을 안겨준 꼰대질, 염장질》이라는 각계의 비난폭우에 부닥쳤다.

《황당망언만 쏟아내는 황교안은 정알못, 경알못, 국알못(정치, 경제를 모르고 국민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황겁질겁하는 모양이 가련하다.》는 야유와 조소는 황당한 말과 행동에 습관된 황교안의 저질적인 수준을 그대로 말해준다.

교활하고 교만한데서도 황교안을 따를 인물이 없다고 한다.

정치생둥이인 그가 《자한당》대표까지 된것은 당내 친박파의 전적인 뒤받침이 있었기때문이다.

하지만 대표감투를 쓰자마자 내가 언제 《박근혜사람》이였느냐 하는 식으로 래년《총선》을 위해 《대폭물갈이》를 해야 한다며 친박의 뒤통수를 쳤다.

친박계 《국회》의원인 홍문종이 《황교안으로서는 어렵다.》며 《자한당》탈당을 선언하고 친박세력들이 《굴러들어온 사람이 집주인을 보고 나가라 한다.》며 분통을 터뜨리고있는것은 겉과 속이 다른 간교한 황교안에 대한 극도의 배신감을 드러낸것이다.

불교계에서 진행하는 종교행사에 참가하여 혼자만 뻣뻣하게 서서 《합장》을 거부한것과 《대통령》과 1:1회담을 하겠다고 오만하게 놀아댄것, 해서는 안된다는것을 뻔히 알면서도 수만명이 모인 경기장에서 《선거운동》을 하거나 쓰레기수집차의 발판에 올라서서 사진까지 찍어대며 돌아친것 역시 빨래줄우에 올라 히뜰머뜰하는 수탉처럼 교만과 건방이 체질화된 황교안의 인간됨을 보여주는것이다.

황교안은 황당하고 교만한것도 모자라 겨레와 남녘민심이 바라고 주장하는것은 한사코 안하고 반대하는데서도 이름그대로 날치고있다.

외세의 간섭을 배격하고 북과 남의 단합된 힘으로 민족의 안전과 삼천리의 평화를 안아오는것은 온 겨레의 한결같은 념원이며 시대와 력사의 요구이다.

그런데 《자한당》대표 황교안은 하루도 번짐이 없이 《북과 대치하고있는 현 상황에서 한미동맹이 흔들림없이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군사합의서체결로 북의 위협에 무방비상태로 만들어버렸다.》며 력사적인 북남선언들과 군사분야합의서를 비방하고 화해와 협력, 교류를 바라는 남조선민심을 거스르는 망발들을 련이어 내뱉고있다.

현 집권자에게 《북대변인》, 《빨갱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개혁법안들을 《신속처리안건》으로 했다고 《국회》를 안 열겠다고 생떼를 쓰며 《낯내기정치》에만 매달리는 황교안을 놓고 남조선인민들은 세살먹은 아이보다 못하다고 혀를 차고있다.

달라진 시대상에 부응하여 사회발전과 민생안정, 민족의 평화를 위해 애쓰지는 못할망정 황당하고 무지한 사고와 막말, 교활하고 간특한 계략과 술책으로 민주부정, 통일방해, 평화파괴에만 광분하는 황교안과 같은자가 《대표》랍시고 돌아치는것 자체가 남조선정계의 수치이다.

민충이 쑥대우에 오른것처럼 독판치기로 교만방자하게 놀아대며 민족을 망신시키는 정치풋내기이고 역적배인 황당한 교안을 력사는 희세의 패륜아로 기록할것이다.

정경아

《성누리당》의 역겨운 추태

남조선에서 얼마전 《자한당》이 《녀성당원행사》라는것을 벌려놓았다.

그런데 명색이 녀성들을 위한 행사라는데서 추잡한 행위가 나타나 사회적물의를 일으키고있다.

이날 《자한당》의 녀성당원들은 공연을 하던 도중 갑자기 바지를 벗고 속옷을 드러낸채 엉덩이춤을 추었다고 한다.

정말 보기 민망할 정도의 낯뜨거운 추태가 아닐수 없다.

어느 어둑컴컴한 뒤골방에서 추태를 부린것도 아니고 대낮에 《자한당》중앙녀성위원회가 주관하고 당대표, 원내대표들도 참가한, 한쪽에서는 촬영기의 섬광이 번쩍이는 공개장소에서 이런 행위를 버젓이 하였으니 얼마나 꼴불견인가.

《자한당》으로 말하면 성희롱, 성추행을 비롯한 성범죄행위들이 당내인물들속에서 꼬리를 물고 계속 일어나 《성누리당》, 《성범죄당》으로 락인찍히고 만사람의 지탄을 받아온 추잡한 당이다.

가관은 녀성당원들이 속옷차림으로 엉덩이춤을 추는것을 현장에서 지켜본 이 당의 대표라는 황교안이 박수를 치면서 《오늘 한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좀 더 연습을 계속해서 정말 멋진 한국당공연단을 만들어달라.》, 《이걸 보면서 한국당의 힘을 느낀다.》고 너스레까지 떤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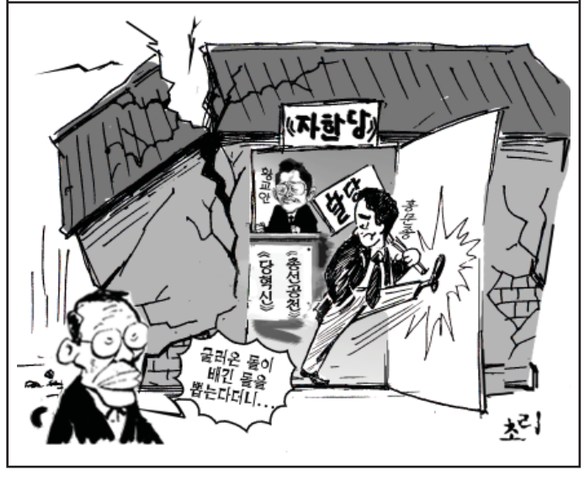
그 당대표에 그 당원이라 해야 할것이다. 《자한당》이야말로 맨 우로부터 맨 아래에 이르기까지 하나같이 똑같은 추물들만이 모인 집단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죽했으면 남조선의 정계와 사회 각계에서 《자한당》의 너절한 놀음을 두고 《녀성을 위한답시고 만든 자리에서 녀성을 희화한 한국당》, 《한국당의 성인지수준이 련이은 막말론난속에서도 수차례 드러났지만 오늘 다시금 확인하게 된다.》, 《박수를 치던 당대표의 경악스러운 성인지감수성이 더욱 절망스럽다.》는 비난이 터져나왔겠는가.

이런 《자한당》이 《녀성, 청년친화당》을 운운하며 세력확장을 꾀하고있다니 삶은 소도 웃을 일이다. 녀성을 한갖 희롱의 대상으로 여기는 《자한당》이야말로 패륜아들의 집단이다.

본사기자 서명수

만평 《망 한 집》



시 **침 을 밸 는 다**

김정혁

세살아이도 구순로인도
온 남녘이 침을 밸는다
퉤—
《자한당》 바로 너희들 상통에

꿀발린 《민생》타령
역겨워서 퉤—
가시돋힌 《좌파독재》나발
쓰거워서 퉤—
장마철 탕수처럼 쏟아내는 막말들
더러워서 퉤— 퉤—

저절로 묵은 가래가 솟구친다
99%의 서민을 개, 돼지로 여기는것들
《민생행보》라니 웬 수작이냐
《세월》호의 눈물 지겹다는것들
누굴 위해 《경제폭망》 떠드느냐 퉤—

야유와 조소로 퉤—
남녘의 강물들 더 불었을게다
경멸과 저주로 퉤—
남해도 부글부글 끓고있으리

《황당》하고 《교활》한 당대표에
백성을 《경원》시하는 원내대표
신발《문수》도 모르는 철없는 전 도지사…
이런 시정잡배들 모인게 《자한당》이라
어이 더럽고 께끈하지 않으랴

에익 퉤—
남녘의 민심이 침을 밸는다
독재병 대결병 친미병…
케케묵은 잡병에 열뜬 《자한당》무리
평화번영이 열리는 새시대에도
동족대결 줴치는 불한당무리

퉤— 《자한당해체!》
민심의 분노가 쏟아진다
퉤— 《자한당파멸!》
심판의 대홍수에 떠밀려
파멸의 하수구로 굴러떨어져간다

다시금 드러난 파쑈광, 모략집단의 정체

남조선에서 2016년 박근혜패당이 기무사령부(당시)를 내세워 초불시위를 탄압하기 위한 간첩사건을 조작하려 했다는것이 새로 폭로되였다.

남조선언론들이 전한데 의하면 기무사령부는 초불시위를 주도하고있던 단체중 하나인 《민주주의국민행동》의 상임대표를 표적으로 삼아 그를 일본에 있는 총련과 억지로 련결시켜놓고 여기에 남조선의 여러 종교인, 정치인들까지 련루시키는 간첩사건을 조작하려 했다는것이다.

이것은 지난 1980년대 전두환에 의해 조작된 김대중내란음모사건을 비롯하여 사회적진보와 정의를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의로운 투쟁을 《내란음모》, 《용공사건》으로 매도하여 무자비하게 탄압하였던 피비린 과거를 재현해보려는 보수패당의 극악무도한 범죄적망동인것이다.

다 아는것처럼 정치적위기에 내몰리울 때마다 있지도 않는 간첩사건들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북풍》을 일으켜 민주개혁세력들을 탄압하고 저들의 파쑈통치를 부지하는것은 력대 남조선보수패당이 써먹어온 상투적수법이다. 역적패당의 음모가 실현되였더라면 정의의 초불을 들었던 애국적인사들이 《간첩》으로 몰려 쇠고랑을 차고 무고한 인민들이 《불온세력》으로 락인되여 피흘리며 쓰러지는 끔찍한 참극이 빚어지게 되였을것이다.

하기에 남조선언론들은 이에 대해 전하면서 《색갈론》을 자극해 진보진영의 대오에 균렬을 내고 보수진영을 재집결하도록 만드는 씨나리오였다. 간첩사건기획은 계엄령을 선포한 기무사령관이 합동수사본부를 맡아 공안정국을 만들어갈 카드로 충분했다.》고 분석했다.

더우기 문제로 되는것은 이러한 비렬한 음모를 꾸민 황교안을 비롯한 박근혜잔당들이 오늘 또다시 머리를 쳐들고 《초불항쟁은 쿠데타》, 《초불에 빼앗긴 정권을 되찾자.》고 고아대며 초불민심에 악랄하게 도전해나서고있는것이다. 지금 보수패당이 현 당국을 《종북좌파정권》, 《빨갱이》, 《북대변인》이라고 몰아대면서 공화국과 억지로 련결시켜 공격하고있는것은 권력탈취를 위해 그 어떤짓도 서슴지 않았던 박근혜《정권》때의 모략행위그대로이다.

현실이 보여주는것처럼 남조선보수패당은 저들의 목적실현을 위해서라면 무슨짓이든 가리지 않는 흉악한 파쑈독재무리, 사회적진보와 정의의 극악한 교살자들이다.

이번에 드러난 간첩사건조작기도는 모략과 음모의 총본산인 《자한당》과 같은 역적무리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언제 가도 남조선사회가 편안할 날이 없고 북남관계개선도, 평화번영도 기대할수 없다는것을 다시금 똑똑히 보여주는것이다.

《보수대통합》에 의한 재집결과 재집권을 떠들며 남조선초불민심을 향하여 보복의 칼을 갈고있는 보수패당은 깨끗이 도려내야 할 암덩어리, 쓰레기통에 처박아야 할 시대의 오물이다.

본사기자 황금숙

무엇을 노린 《색갈론》소동인가

남조선의 《자한당》을 비롯한 보수세력들에게는 《안보》, 《색갈론》과 같은 전매품들이 있다.

때와 장소도 가림이 없이 전매품들을 광고하는 《자한당》을 비롯한 보수세력들의 추태는 갈수록 사람들의 눈살만 찌프리게 하고있다.

지금 당대표 황교안, 원내대표 라경원을 비롯한 《자한당》패거리들은 현 남조선당국자를 《좌파》를 넘어 《북대변인》, 《빨갱이》라고 하면서 《청와대폭파》, 《정권타도》망발을 꺼리낌없이 내뱉으며 광기를 부리고있다. 여기에 덩달아 《한국기독교총련합회》, 《태극기부대》를 비롯한 극우보수단체들도 문재인《정권》으로 하여 《한국》이 《종북화》, 《공산화》되고있다,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대한민국의 적》이라고 하면서 《문재인하야》까지 공공연히 떠들고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를 비롯한 보수언론들은 보수세력들의 《빨갱이론》을 그대로 되받아 여론화하면서 리념대결을 부추기고있다.

《자한당》을 비롯한 보수세력들이 현직《대통령》을 《빨갱이》로 걸고들며 독기를 피우는것은 그들의 《색갈론》소동이 어느 지경에까지 이르렀는가를 잘 말해준다.

《자한당》을 비롯한 보수세력들이 벌리고있는 악랄한 《색갈론》공세는 민주개혁세력으로부터 《정권》을 찬탈하려는 역적무리들의 필사의 몸부림이다.

권력을 쥐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것이 《자한당》을 비롯한 보수세력들이다.

5.16군사쿠데타로 4.19혁명의 성과물을 짓밟고 권력을 탈취한 《유신》독재자나 광주를 피바다에 잠그고 권력을 쥔 전두환역도가 《자한당》의 조상이라는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어디 이뿐인가. 2016년 보수세력들이 박근혜를 탄핵으로 몰아간 남조선인민들의 평화적인 초불시위투쟁을 무력으로 진압하려고 책동한것을 보면 이 역적무리들이야말로 권력이라는 목적달성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천하에 둘도 없는 깡패무리임이 분명하다.

《자한당》이 권력에 환장한 이런 히스테리집단이기에 재집권야망을 실현해보려고 《정부》와 여당은 말할것도 없고 집권자에게까지 꺼리낌없이 《빨갱이》모자를 씌우며 독설과 막말을 퍼붓고있는것이다.

문제는 《자한당》의 분별없는 망동이 공화국의 존엄과 체제를 걸고 력사적인 북남선언들까지 파기하려고 더욱 광란적으로 벌어지고있는것이다.

정쟁을 하겠으면 저들끼리나 해야 할것이다. 민족분렬에 기생해온 보수패당이 《빨갱이》를 운운하며 반공화국적대의식을 로골적으로 드러내고있는것은 공화국에 대한 참을수 없는 모독이고 정치적도발이다.

《자한당》이 저들의 정쟁놀음에 공화국을 걸고들며 늘어지는것은 온 민족의 총의가 반영된 력사적인 북남선언들을 어떻게 하나 파기시키기 위해서이다.

이것은 보수패당이야말로 북남관계를 결딴내며 평화적분위기를 파괴하려고 미쳐날뛰는 민족반역의 무리임을 실증해주는것이다.

남조선민심이 보수패당을 가리켜 리념대결로 서식하는 《분단기생충》, 《사회분렬세력》, 《갈등조장세력》이라고 저주를 퍼붓고있는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추악한 권력야욕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면 정적이든 동족이든 미친개처럼 물어뜯는 보수패거리들은 하루빨리 제거해버려야 할 민족의 재앙거리이며 평화와 통일의 암적존재이다.

말이 통하지 않는 미친개에게는 몽둥이찜질이 제격이다.

김성희

부 산 시 민 들
《자한당》을 규탄하는 초불집회 진행

남조선인터네트신문 《자주시보》에 의하면 22일 부산에서 《자한당》의 해체를 주장하는 각계층 시민들의 초불집회가 진행되였다.

발언자들은 《자한당》소속 《국회》의원들이 몇달째 일하지 않고도 월급을 꼬박꼬박 받아가고있다고 비난하였다.

뿐만아니라 이 당의 대표 황교안이 《민생》을 떠들며 또다시 부산에 왔지만 시민들의 우려와 반대에 부딪치고있다고 하면서 그들은 《자한당》의 《대책안》이라는것이 재벌을 살리고 서민을 죽이는것이라고 비난하였다.

집회에서는 《자유한국당》이라는 다섯글자로 5행시짓기가 있었다.

한 주민이 쓴 《자유당에서 시작해/유신헌법 독재거쳐/한나라당 차떼기에/국가적망신 자유한국당/당장 추방하자!》라는 시가 가장 우수한 작품으로 평가되였다.

본사기자

《친박신당창당》설이 시사하는것은

남조선에서 《자유한국당》의원들을 《징계》하였는데 하필이면 그들이 《진실한 친박》이라고 하는 친박세력들이다.

반대로 원내대표라는 라경원이 《창녀》니 뭐니 하는 망언을 했을 때는 《솜방망이징계》조차도 내리지 않았으니 친박세력의 심사가 편할리 없다.

《자유한국당》내의 친박근혜파가 탈당하여 새로운 당을 만들겠다고 한다.

《유신》독재자와 그 후예인 박근혜의 《정신》을 이어 그 무슨 《신공화당》이라는 보수정당을 새로 내온다는것이다.

《보수대통합》을 제창하던 《자유한국당》대표 황교안이 머쓱해지지 않을수 없게 되였다.

친박세력의 《반란》인가? 그럴수도 있다.

원래 정치지지기반이 약했던 황교안은 친박세력의 지원으로 《자유한국당》의 당대표로 나설수 있었다.

그러나 당대표가 된 황교안의 지금까지 행적을 보면서 친박세력이 많이 실망한 모양이다.

실례로 황교안이 세인의 눈과 비난도 있고 하여 《세월》호막말, 5.18망언을 한 모자랄 판에 징계를 걱정하면 싸움이 되겠느냐.》고 힐난하고 《자유한국당》대변인 민경욱은 한수 더 떠서 《대통령》의 해외출장을 두고 《천렵질》이라고 또 막말을 해댄다.

황교안이 추구하는 《바른미래당》과의 련대도 친박세력에게는 불만이다.

황교안이 대를 세워보려고 막말이 재발하면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니 막말과 악담으로 인기를 올리던 친박세력은 더욱 속이 뒤틀릴수밖에 없는것이다.

마치 남의 둥지에서 까난 뻐꾸기가 그 둥지의 새끼들을 하나둘 밀어내던지는 형국이랄가.

오죽하면 김진태는 《좌파와 싸우려면 온몸을 던져도 이의 의미심장하다.

일각에선 류승민이 말한 《변화와 혁신》이란 《자유한국당》내의 《친박소멸》일것이라고 평한다.

즉 친박이 없어야 련대가 가능하다는 소리인데도 황교안은 《보수대통합》을 포기하려 하지 않는다.

도적같은 《뻐꾸기》가 다음기 권력을 넘겨다보는 황교안이 세력확장을 위해 《바른미래당》에 추파를 던질수 있겠지만 그들은 모두 박근혜탄핵에 찬성하여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을 탈당했던 비박세력이다.

황교안의 련대타령에 《변화와 혁신없는 한국당으로 가는 일은 없다.》고 한 《바른미래당》 류승민의 말은 물대포를 사정없이 내쏘아 일흔에 가까운 농민을 무참히 살해하도록 한자도 황교안이다.

사람잡이에 이골이 난 교형리였기에 2016년 박근혜탄핵을 요구하는 평화적인 초불투쟁세력을 무력으로 진압하기 위한 음모까지 꾸미였다.

이런 살인악마가 《자유한국당》대표자리를 발판으로 권력의 감투를 뒤집어쓰기 위해 혈안이 되여 날치고있는것이다.

정치와 경제에는 무능하고 사람잡이기질밖에 없는 황교안이 정계무대에서 계속 날치게 내버려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남조선인민들이 입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리철민

황 당 한 교 안

력사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의로운 길에서 이름을 빛내이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그에 역행하는 추물들도 있어 인민의 지탄을 받는다.

《자한당》대표 황교안이 바로 그렇다.

황교안으로 말하면 30년의 공안검사경력에다 《유신》악녀밑에서 법무부 장관, 《총리》, 《대통령》권한대행까지 한것으로 하여 보수꼴통들가운데서는 《명성》이 자자하다.

그래서인지 황교안이 하는 짓거리들을 보면 반민주, 반민생, 반민족, 반통일, 반평화망동들뿐이다.

그것도 신통히 제 이름자와 같이 놀아대여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있다.

무엇보다 언행이 황당하고 해괴하기 그지없다.

한개 정당의 대표라면 현실감각과 정치지능이 있어야 할것이다.

그런데 그는 얼마전에 아들이 《점수가 모자랐지만 5개 기업에서 입직합격서를 받았다.》, 《내국인과 외국인의 임금이 같은것은 불공정하니 법개정을 하겠다.》고 떠들어 《정치인으로서 동떨어진 현실인식을 보여주는것》, 《청년들에게 절망을 안겨준 꼰대질, 염장질》이라는 각계의 비난폭우에 부닥쳤다.

《황당망언만 쏟아내는 황교안은 정알못, 경알못, 국알못(정치, 경제를 모르고 국민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황겁질겁하는 모양이 가련하다.》는 야유와 조소는 황당한 말과 행동에 습관된 황교안의 저질적인 수준을 그대로 말해준다.

교활하고 교만한데서도 황교안을 따를 인물이 없다고 한다.

정치생둥이인 그가 《자한당》대표까지 된것은 당내 친박파의 전적인 뒤받침이 있었기때문이다.

하지만 대표감투를 쓰자마자 내가 언제 《박근혜사람》이였느냐 하는 식으로 래년《총선》을 위해 《대폭물갈이》를 해야 한다며 친박의 뒤통수를 쳤다.

친박계 《국회》의원인 홍문종이 《황교안으로서는 어렵다.》며 《자한당》탈당을 선언하고 친박세력들이 《굴러들어온 사람이 집주인을 보고 나가라 한다.》며 분통을 터뜨리고있는것은 겉과 속이 다른 간교한 황교안에 대한 극도의 배신감을 드러낸것이다.

불교계에서 진행하는 종교행사에 참가하여 혼자만 뻣뻣하게 서서 《합장》을 거부한것과 《대통령》과 1:1회담을 하겠다고 오만하게 놀아댄것, 해서는 안된다는것을 뻔히 알면서도 수만명이 모인 경기장에서 《선거운동》을 하거나 쓰레기수집차의 발판에 올라서서 사진까지 찍어대며 돌아친것 역시 빨래줄우에 올라 히뜰머뜰하는 수탉처럼 교만과 건방이 체질화된 황교안의 인간됨을 보여주는것이다.

황교안은 황당하고 교만한것도 모자라 겨레와 남녘민심이 바라고 주장하는것은 한사코 안하고 반대하는데서도 이름그대로 날치고있다.

외세의 간섭을 배격하고 북과 남의 단합된 힘으로 민족의 안전과 삼천리의 평화를 안아오는것은 온 겨레의 한결같은 념원이며 시대와 력사의 요구이다.

그런데 《자한당》대표 황교안은 하루도 번짐이 없이 《북과 대치하고있는 현 상황에서 한미동맹이 흔들림없이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군사합의서체결로 북의 위협에 무방비상태로 만들어버렸다.》며 력사적인 북남선언들과 군사분야합의서를 비방하고 화해와 협력, 교류를 바라는 남조선민심을 거스르는 망발들을 련이어 내뱉고있다.

현 집권자에게 《북대변인》, 《빨갱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개혁법안들을 《신속처리안건》으로 했다고 《국회》를 안 열겠다고 생떼를 쓰며 《낯내기정치》에만 매달리는 황교안을 놓고 남조선인민들은 세살먹은 아이보다 못하다고 혀를 차고있다.

달라진 시대상에 부응하여 사회발전과 민생안정, 민족의 평화를 위해 애쓰지는 못할망정 황당하고 무지한 사고와 막말, 교활하고 간특한 계략과 술책으로 민주부정, 통일방해, 평화파괴에만 광분하는 황교안과 같은자가 《대표》랍시고 돌아치는것 자체가 남조선정계의 수치이다.

민충이 쑥대우에 오른것처럼 독판치기로 교만방자하게 놀아대며 민족을 망신시키는 정치풋내기이고 역적배인 황당한 교안을 력사는 희세의 패륜아로 기록할것이다.

정경아

제힘으로 질좋은 타일들을 생산한다

— 천리마타일공장을 찾아서 —

천리마타일공장에서 생산한 외벽타일, 바닥타일, 장식타일을 비롯한 각종 타일제품들이 인민들속에서 호평이자자하다. 얼마전 우리는 자력갱생의 기치를 높이 들고 다종다양한 타일제품들을 생산하고있는 이 공장을 찾았다.

비약의 원동력

무연탄가스화실현, 타일원료생산보장체계수립, 각종 유약원료의 국산화실현, 후민산소다생산, 포장재의 자체생산, 가스발생로 정제계통을 비롯한 중요설비들을 자체로 생산… 이것은 천리마타일공장에서 자력갱생과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이룩한 성과들중의 일부이다.

자동흐름선을 타고 타일들이 련속 생산되여나오는 현장에서 우리와 만난 리희철부기사장은 불리한 조건에서도 타일생산을 정상화하고있는것은 유약원료의 국산화를 실현한데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지난 시기 공장에서는 유약생산에 필요한 값비싼 프리트를 수입해다 썼다고 한다. 타일공업에서 프리트의 질이 유약의 질이고 타일의 질이라고 할수 있다. 프리트의 국산화는 타일공업의 주체화실현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였다.

그러나 이들에게 기술을 가르쳐줄 사람도, 함께 방도를 토론할 사람도 없었다. 자체의 힘으로 방도를 찾는 길밖에 없었다. 시험로에서 성공하였지만 생산에서 뜻대로 되지 않아 실패하기를 그몇번, 하지만 이들은 주저앉지 않고 이악하게 노력하여 유약용프리트를 자체로 개발하는데 성공하였다.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여기는것을 자체의 힘으로 현실로 이루어놓은 이들의 창조기풍은 이뿐이 아니였다.

공장의 기술자, 로동자들은 타일의 원료가공공정에 쓰이는 감수제도 자체의 힘과 지혜로 만들어냈다. 공장의 심장과도 같은 가스탕크를 새로 교체할 때에도 이들은 대담한 기술혁신안들을 내놓아 석달이상 걸려야 한다던 가스탕크교체작업을 불과 50일동안에 끝내였다.

자체실정에 맞는 전력변환장치를 개발하여 현대적인 천연색분무인쇄설비를 생산에 정상가동할수 있게 하고 첨단설비들의 조종프로그람을 제힘으로 개발한것을 비롯하여 최근년간에 이룩한 기술혁신성과는 헤아릴수 없이 많다. 이 모든것은 공장이 제발로 걸어나갈수 있는 튼튼한 토대로, 높아진 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할수 있는 비약의 원동력으로 되였다.

다색화, 다양화된 고급타일들

타일은 건축에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마감건재의 하나로 되고있다. 리희철부기사장은 공장에서 국내에 흔한 원료와 선진과학기술에 의거하여 여러가지 용도의 질좋은 타일들을 생산하고있다고 하면서 타일전시장으로 이끌었다.

공장에서 생산한 각종 타일들로 벽장식도 하고 바닥시공도 해놓은 전시장은 하나의 타일박물관을 방불케 했다.

대리석과 벽돌을 차곡차곡 쌓아놓은것 같은 타일, 묘하게 생긴 돌이나 쪽널을 맞추어놓은것같은 타일, 나무줄기와 잎, 무늬 등이 그려진 타일, 유리모자이크타일, 복합유리타일 등 각이한 규격에 색과 무늬 또한 다양하였다.

전시장에는 천연색분무인쇄기로 그림인쇄를 한 장식타일들도 있었는데 마치 예술작품을 보는듯싶었다. 이밖에 유리와 같은 광택이 나는 미정석과 인조대리석 그리고 기능성색보도블로크, 색돌외장재, 갖가지 기와들도 볼수록 멋있었다.

이 공장의 타일제품들은 품질이 높아 국내최우수제품으로 평가되여 12월15일품질메달을 받았다고 한다. 전국마감건재부문 과학기술성과전람회—2019에서도 다색화, 다양화가 실현된 공장의 타일제품들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외국인들과 해외동포들도 이 공장에서 생산한 각종 타일제품들이 모양과 문양, 색갈 등에 있어서 발전된 나라들것보다 품질이 뛰여나다고 찬사를 아끼지 않고있다. 한 해외동포는 타일전시장을 돌아보고 《훌륭한 타일공장을 건설하고 세계를 향해 달려가는 조국의 동포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해외동포의 한 사람으로서 조국의 비약적인 발전에 크게 감동되였다.》고 말하였다고 한다.

공장에서는 타일생산에서 더 큰 성과를 이룩하기 위해 제3단계 생산공정의 능력확장공사를 다그치고있다. 이것이 완공되면 공장은 또다시 모습을 새롭게 일신하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김 철

국제무대에서 높은 기량을 보인 나어린 피아노연주가들

얼마전 뽈스까의 샤파르니아에서 제27차 쇼뻥국제청소년피아노경연이 진행되였다. 경연에서는 1부류경연에서 순위권에 입선한 경상유치원의 유진아어린이가 특별상을 받고 수상자들의 모범연주회에 출연하였으며 같은 유치원의 리권윤어린이와 평양제1음악학원의 김예송학생은 1부류와 3부류경연에서 각각 특별상을 받았다.

부모도 미처 몰랐던 음악적소질

우리가 경상유치원을 찾았을 때 유진아, 리권윤어린이들은 다른 아이들과 함께 운동장이 좁다하게 뛰놀고있었다. 우리와 만난 최순영교양원은 재능있는 어린이들을 위해 베풀어지는 나라의 혜택에 대해 다 알기에는 아이들이

너무도 어리다고 하면서 리권윤어린이를 맡아 키우던 나날에 대해 들려주었다.

음악에 대한 남다른 소질을 가진 리권윤어린이의 재능은 피아노를 배우던 첫 시기에 눈에 띄게 나타났다고 한다. 재빠른 손놀림으로 복잡한 음짚기와 반복음짚기를 능숙하게 수행하고 배운 내용을 쉽게 소화하군 하는 그에게서 음악적소질을 발견하고 유치원에서는 리권윤어린이의 재능을 활짝 꽃피워주기로 마음먹었다.

로력영웅이며 인민교원인 리강죽경상유치원 원장은 《뛰여난 예술적소질을 가진 어린이들을 훌륭한 재간둥이로 키우기 위해 그들에게 전문교육을 주면서 월별, 주별로 기량발표회도 진행하고있다.》고 하면서 유치원에서 어린이 한명을 위해 청음시창교원, 전과교양원, 담임교양원을 붙여주어 재능의 나래를 펼치도록 하고있다고 말해주었다.

이 과정에 지난기간 경상유치원에서 유진아, 리권윤, 마신아, 유별미, 최장홍, 리유정어린이를 비롯하여 국제경연무대들에서 명성을 떨친 음악신동들이 수많이 배출되였다는것이였다.

유진아어린이의 어머니 김은경녀성은 이렇게 말하였다.

《이번에 쇼뻥국제청소년피아노경연준비를 위해 지혜와 정열을 다 바쳐가는 유치원교양원선생님들을 보면서 평범한 가정의 딸자식을 위해 베풀어주는 나라의 은덕을 다시금 가슴뜨겁게 느꼈다. 그래서 경연을 위해 떠나던 날 저의 남편은 어린 딸의 손에 공화국기발을 쥐여주며 조국의 명예를 남김없이 떨치라고 말해주었다.》

유진아어린이는 《경연장에서 나를 바래워주던 부모님들과 동무들의 모습을 생각했다. 아버지가 공화국기발을 쥐여주면서 하시던 말씀이 귀에 쟁쟁히 울려왔다.》고 말하였다.

고마움의 인사가 담긴 꽃다발

《자식을 키우는데 오만자루 품이 든다는 이야기를 딸을 낳아 키우면서 더 잘 알게 되였다.》

이것은 제27차 쇼뻥국제청소년피아노경연에 참가하였던 김예송학생의 어머니가 한 말이였다.

그는 낳아 키운 부모들도 미처 몰랐던 예송이의 음악적재능의 싹을 찾아 온갖 정성을 다해 꽃피워준 고마운 사회주의교육제도가 있었기에 세계적인 피아노경연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수 있었다며 눈굽을 적시였다.

이번에 김예송학생은 쇼뻥국제청소년피아노경연 3부류경연에서 특별상을 받았다. 성인급을 제외하고 제일 난도가 높다고 할수 있는 3부류경연에서 그가 다른 나라의 실력있는 경연참가자들을 누르고 특별상을 받을수 있은데는 권성금교원의 남모르는 노력도 깃들어있다.

밤을 새워가며 기량훈련을 하는 김예송학생을 위해 기울인 권성금교원의 노력을 어찌 한두마디의 말로 다 표현할수 있으랴.

하기에 김예송학생은 제27차 쇼뻥국제청소년피아노경연에 참가하여 특별상을 받고 조국에 돌아온 후 경상유치원의 교양원들과 권성금교원에게 고마움의 인사가 담긴 꽃다발을 안겨주었다고 한다.

권성금교원은 말하였다.

《훌륭한 제자뒤에는 훌륭한 스승이 있습니다. 이 말에 한마디 더 보탠다면 훌륭한 스승뒤에는 그를 키워준 고마운 조국이 있다는것입니다.》

본사기자 강류성

간석지논에 애국의 땀을 바쳐가는 청년들

일명 안주벌이라고도 하는 열두삼천리벌의 한끝에 숙천군 칠리농장이 있다. 칠리라는 말은 이곳에서부터 주변에 있는 4개 리들과의 거리가 7리라는데로부터 유래되였다고 한다. 이곳에 나라의 쌀독을 책임진 주인된 자각을 안고 애국의 성실한 땀과 열정을 바쳐가고있는 청년작업반원들이 있다.

한평한평 기름진 옥토로

공화국에서 청년분조, 청년작업반은 주체66(1977)년 8월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당시 신안주녀자고등중학교 졸업생들이 안주군 상서협동농장에 집단진출한 소행을 보고받으시고 감사를 보내주신것을 계기로 도처에서 청년들이 사회주의협동벌로 달려나간데서 발단되였다.

청년분조, 청년작업반은 청춘의 패기와 열정으로 더 많은 알곡을 생산하여 나라에 보탬을 주고 나서 자란 고향을 아름답고 살기좋은 고장으로 꾸려나가려는 새 세대청년들의 뜨거운 애국심의 발현이다.

칠리소재지에서 수십리나 떨어진 열두삼천리벌의 한끝에 청년분조의 기발이 휘날리기 시작한것은 1990년대말이였다. 청년분조원들이 맡은 포전은 같이 무성한 간석지논인데다가 관개체계의 말단에 위치한것으로 하여 농사조건이 불리하였다.

우리와 만난 이곳 청년작업반 초급일군인 김재남은 시련은 컸지만 청년분조원들은 난관앞에 물러서지 않았다며 그때를 추억하였다.

청년분조원들은 뼈속까지 스며드는 차디찬 바다바람을 이겨내며 갈그루터기에 손발이 찔리고 베여 피가 흐르는 아픔도 견디여내며 자기의 살점과도 같은 땅을 한평한평 기름진 옥토로 가꾸어나갔다.

이들은 당면한 영농준비와 함께 토지정리를 동시에 내밀어 논판의 웅뎅이들과 갈밭들을 모두 없애고 분조의 포전을 2~3정보의 큰 규격포전으로 번듯하게 정리해놓았다.

그리고 자체의 힘으로 논수평을 보장하는 농기계를 만들고 앞선 영농방법을 받아들여 정보당 알곡소출을 높여나갔다.

이 나날 처음에 몇명의 청년들로 조직된 청년분조가 70여명의 청장년들로 흥성이는 3중모범청년작업반으로, 온 나라에 널리 알려진 다수확자, 다수확단위로 몰라보게 성장하였다.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 경험교환운동을 벌리는 과정에 하루 영농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청년작업반원들이 나날이 늘어나고있다. 바둑판처럼 펼쳐진 규격화된 논들과 번듯하게 꾸린 합숙, 식당 등을 돌아보느라니 청년들이 마음먹고 달라붙으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것을 느낄수 있었다.

사랑과 정으로 한마음 되여

농사일에 들어가서는 서로 양보를 모르는 청년작업반원들이지만 이들사이에 오가는 사랑과 정은 참으로 뜨겁다. 제대되여 대학으로가 아니라 이곳 청년작업반으로 자원해온 조광윤분조장은 《사랑과 정으로 뭉친 우리 청년작업반원들이 있어 올해에도 다수확은 문제없다.》고 말하였다.

청년작업반에서는 초급일군들이 합숙생들의 생활에서 사소한 불편이라도 있을세라 늘 따뜻이 돌봐주고있다.

합숙생들에게 철따라 새옷을 해주고 생일날이면 푸짐한 생일상도 차려준다. 작업반의 처녀, 총각들이 결혼식을 할 때면 제일처럼 기뻐하며 축하해주고 살림도구들도 일식으로 마련해주군 한다.

청년작업반에서 농장원들을 위해 새 살림집을 번듯하게 지어준 이야기며 심하게 앓는 작업반원을 위해 먼길을 걸어 귀한 약을 구해와 완치시킨 이야기들은 들을수록 감동적이였다.

언제인가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한다. 수십년만에 처음 보는 폭우로 하여 청년작업반의 논이 물에 잠길 위험에 처하였을 때 작업반 초급일군들은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몰라 망설이였다. 이때 작업반원들이 너도나도 삽과 곡괭이들을 들고 달려왔다. 그 모습은 초급일군들의 심장을 울려주었다. 믿음과 정이 실린 눈빛들이 수천마디의 말보다 더욱 명확한 언어를 주고받으며 오갔다.

생사를 함께 할 믿음으로 청년작업반원들은 논벼들을 모두 살려냈고 큰물에도 끄떡없이 농사를 지을수 있게 해놓았다. 칠리농장 사람들은 사랑과 정으로 뭉친 청년작업반의 힘이 기적을 나았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나라의 쌀독을 책임진 주인된 자각을 안고 이들은 포전마다에 청춘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 지난 시기 정보당 2t도 거두지 못하던 땅에서 11t이상의 높은 소출을 내는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다.

청년작업반원들에 대한 감동깊은 이야기를 들으며 저녁노을이 물든 포전들을 바라보니 한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웠다.

포전마다에 뿌리내린 충실한 벼모들이 해풍에 아지를 하느적이며 이렇게 속삭이는듯싶었다. 여기에 성실한 땀과 노력으로 풍요한 대지를 가꿔가는 열두삼천리벌의 미더운 주인들이 있다고…

본사기자 김진혁

즐거운 휴식의 한때를 보내며

— 개선청년공원유희장에서 —

풍치수려한 모란봉기슭에 위치한 개선청년공원유희장에서 희열과 랑만에 넘친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그칠줄 모르고있다.

얼마전 우리가 개선청년공원유희장에 도착한 때는 해질무렵이였다. 유희장앞의 넓은 공지는 청량음료매대들에서 시원한 음료를 마시는 사람들, 산책을 하는 사람들, 유희기구를 타보고 느낀 소감을 나누는 사람들로 붐비고있었다.

거기에는 즉석료리매대들도 있는데 사람들은 저마다 《유희기구를 타느라 시간을 지체하다보면 밤이 깊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그때마다 이곳에서 즉석료리를 봉사받으니 여러모로 편리하고 좋다.》고 말하였다.

우리와 만난 유희장의 한 일군은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위대한 장군님께서 평양의 중심에 위치한 이 일대에 사람들이 찾아와 휴식의 한때를 즐길수 있는 공원을 꾸리도록 해주시고 개선청년공원유희장의 개건운영과 관련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고 하면서 절세위인들의 인민사랑이 더 잘 미치도록 하기 위해 봉사사업을 짜고들고있다고 말하였다.

하기에 개선청년공원유희장에서 유희기구를 리용하면서 휴식의 한때를 보내는 사람들을 보고 외국인들은 《우리 나라에서는 이런 유희기구를 한번 타보자면 많은 돈을 내야 한다. 그런데 조선에서는 사람들이 눅은 값으로 유희기구를 리용하고있으니 놀랍다.》고 부러움을 금치 못했다고 한다.

해는 서산에 기울고 하늘에 뭇별들이 하나둘 늘어나건만 개선청년공원유희장은 유희기구들의 동음소리, 사람들의 유쾌한 웃음소리로 떠들썩했다.

이곳 유희장에서 제일 인기를 끄는 회전그네에 오른 사람들속에서는 창공에 날아올랐다가 내려꽂히는 짜릿함때문인지 비명과 탄성이 연방 터져나왔다. 회전그네 운전공의 말에 의하면 회전운동과 흔들이운동을 다같이 수행하는 이 유희기구는 상승할 때보다 하강할 때의 긴장감이 더하다고 한다.

우리는 방금 급강하탑을 타고 내린 한 학생을 만났다. 남포시에서 평양견학을 왔다는 리철복학생은 《평양에 가면 개선청년공원유희장에서 급강하탑을 타보자고 동무들과 약속했다. 정작 타보니 그 쾌감을 무엇이라고 말했으면 좋을지 모르겠다. 한번 더 타보고싶다.》며 달려가는것이였다.

청진시에서 온 김금혜(58살)녀성도 《나이가 많아 속도가 빠른 유희기구는 타보지 못했지만 배그네와 같은 유희기구는 타볼수록 신바람이 났다.》며 평양에 올 때마다 이곳 유희장을 찾군 한다고 말하였다.

누구나 찾아와 즐거운 한때를 보내는 개선청년공원유희장의 밤은 소리없이 깊어가도 사람들의 웃음소리는 그칠줄 몰랐다.

본사기자 김혜성

새로 개건된 조선우표박물관을 찾아서 (1)

새로 개건된 조선우표박물관으로 날마다 많은 우표애호가들이 찾아오고있다.

조선우표박물관에는 공화국의 발전행로를 보여주는 우표와 우편엽서들 그리고 우리 민족의 고대 및 중세 우편통신력사, 조선봉건왕조시기 근대적인 우편제도의 설립을 보여주는 우표관련 유물들이 전시되여있다. 또한 지난시기 여러 국제우표전람회들에서 수여받은 상장과 컵, 메달들도 전시되여있다.

근대적인 우편활동의 개시

우편료금을 지불한 표시로 우편물에 붙이는 증서인 우표가 세상에 나온지도 오랜 세월이 흘렀다.

1840년 5월 1일 교육자이며 발명가인 로렌드 힐에 의하여 영국에서 세계 최초의 우표가 발행된 이후 개인들사이, 나라들사이에 쉬임없이 오고간 우표들을 가리켜 사람들은 《나라의 증권》, 《꼬마외교관》, 《종이보석》이라고 불러왔다.

고대, 중세시기의 통신활동을 보여주는 전시판앞에서 강사의 해설을 들은 우리는 참관자들과 함께 근대시기의 우편제도를 보여주는 자료들이 전시되여있는 곳으로 걸음을 옮기였다.

강사의 말에 의하면 우리 민족사에서 우편제도를 근대화하기 위한 사업은 19세기 후반기 개화파들의 적극적인 활동에 의하여 시작되였다고 한다. 당시 국내외적으로 체신업무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김옥균을 비롯한 개화파들은 락후한 역참제도를 없애고 근대적인 우편제도를 실시할것을 적극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그것을 총괄하기 위한 기관으로서 우정국이 설치되고 그 총판으로 홍영식이 되였다.

1884년 11월 우리 민족의 첫 우표인 문위우표(당시 화폐의 단위가 《문》이라는데로부터 붙여진 이름)가 발행되였으며 이때부터 근대적인 우편활동이 개시되게 되였다.

1884년 11월에 발행된 문위우표

우표를 통하여 선진적인 우편통신제도의 원리를 사람들에게 인식시키고 사회생활에 전면적으로 도입한것은 우리 겨레를 근대문명에로 전진시킨 커다란 혁신이였다. 그러나 갑신정변의 실패로 첫 근대우편봉사는 불과 십여일밖에 진행되지 못하였다.

그후 갑오개혁을 계기로 김홍집을 비롯한 혁신관료들에 의하여 근대적인 우편봉사활동이 다시 시작되였으며 20세기초까지 수십종의 우표와 여러종의 엽서들이 발행되였다.

지난날 일본의 조선우표말살책동을 보여주는 전시판앞에서 강사는 이렇게 말하였다.

《발전하는 세계문명에 편승하여 설립되였던 우리의 근대우편제도는 일제의 민족문화말살책동으로 하여 짧은 기간밖에 존재하지 못하였습니다.》

1905년 일제의 강요로 하여 우리 겨레는 자주적인 독립국가의 통신권을 완전히 강탈당하였다. 하여 조선사람들은 일본놈들의 우편봉사를 통하지 않고서는 편지나 전보도 보낼수 없게 되였다.

민족문화발전의 원쑤, 불법무도한 침략자로서의 일제의 정체를 낱낱이 폭로하는 자료들앞에서 우리는 나라를 빼앗기면 대를 두고 전해가야 할 민족의 귀중한 문화유산도 송두리채 빼앗기게 된다는 력사의 진리를 다시금 깊이 새겨안았다.

본사기자 류현철

록화와 건강

흔히 사람들은 대자연의 록색식물속에 있게 되면 잡념이 사라지고 정신이 맑아진다고 한다.

록화된 환경은 사람의 체온을 1~2℃ 내리우며 맥박을 분당 7~8회 적게 뛰게 한다. 또한 호흡을 고르롭게 하고 혈액류동속도를 떨구어 심장의 부담을 덜어준다.

숲속의 공기에는 《장수소》라고 부르는 음이온이 풍부하다. 이 음이온은 사람들의 신경계통을 조절하고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면역능력을 높일뿐아니라 혈압을 낮추고 신경쇠약, 페기종, 관상동맥병 등 질병들을 치료하기도 한다.

나무는 연기와 먼지를 려과하는 려과기이다. 무성한 나무잎들은 떠돌아다니는 많은 연기와 먼지들을 흡착한다. 1정보의 수림은 1년에 340t의 연기와 먼지를 제거하는데 바늘잎나무인 경우 백양나무보다 그 제거량이 30배나 많다.

식물은 천연적인 《흡독기》라고 할수 있다. 공업이 부단히 발전하는데 따라 공기중에 이산화류황을 비롯한 유해물질이 대단히 많아지고있으며 인체에 큰 해를 주고있다. 나무숲의 이산화류황흡수량은 나무숲이 없는 지대에 비해 5~10배정도로 많다.

나무는 그늘을 지워주어 온도를 낮추며 기후를 조절한다. 여름철 숲속의 태양복사량은 66%인데 숲은 평균복사온도를 14.1%로 낮춘다.

소음도 사람의 건강에 해롭다. 소음은 도시에서 이미 하나의 공해현상으로 되고있다. 그러나 너비가 40m나 되는 나무지대는 10~15dB의 소음을 막아낸다. 나무가 없는 길에서의 소음은 나무가 무성한 길에서 보다 5배나 더 많아진다. 어떤 사람이 숲속에서 한달동안 지냈더니 소음병증상이 80%나 감소되였다고 한다. 그 다음부터 사람들은 이것을 《나무숲치료법》이라고 불렀다.

본사기자

새로 나온 도서 《대뇌의 보물 사유지도》

최근 조선출판물수출입사에서 근로자들과 학생들의 사업과 학습에 도움을 주는 도서 《대뇌의 보물 사유지도》를 내놓았다.

도서는 먼저 대뇌의 잠재력이 얼마나 무한한가에 대하여 서술하고 사유지도에 대한 일반적리해를 주었다.

그리고 필기와 학습, 기억력개발, 창조적사유능력개발, 독서 및 창작적능력개발, 계획작성, 경영전략 등에서 사유지도가 어떻게 응용되는가를 서술하고 손으로 그리는 사유지도가 쏘프트웨어기술과 결합되여 사유지도쏘프트웨어로 발전하고있는데 대하여 해설하였다.

도서는 사유지도가 사물현상의 본질을 뚜렷하게 체계화하고 사유과정을 중점화하는 독특한 사유도구이라는것을 밝히였다.

또한 사유지도가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인간의 모든 사유활동과 실천활동을 효률적으로 설계하고 창조력을 높이 발휘하여 성공적으로 진행해나가는데서 필수적이라는것을 설득력있게 보여주고있다.

도서 《대뇌의 보물 사유지도》는 공화국에서 속독교수의 개척자이며 《두뇌개발속독》(전 6권)을 비롯하여 여러권의 속독도서를 집필한 평양제1중학교 속독연구실 김정순박사가 집필하였다.

본사기자

미래의 기본에네르기원천— 수소에네르기

수소에네르기는 수소가 산소와 결합될 때 나오는 깨끗한 에네르기로서 세계적으로 미래의 에네르기로 주목되고있으며 적극 개발리용되고있다.

수소는 우주질량의 75%를 차지하고있는것으로 하여 량적으로 무한하고 수소를 생산하고 남은 물질이 물밖에 없으므로 친환경적이여서 화석연료를 대신할수 있는 미래의 기본에네르기원천으로 인정되고있다.

현재 수소는 로케트, 자동차, 무인기, 무인잠수정 등의 연료로 리용되고있지만 앞으로 원유, 석탄을 비롯한 화석연료를 대신할뿐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널리 리용되여 산업구조를 바꾸어놓게 될것이라고 한다.

이로부터 많은 나라들에서 수소를 대량적으로 얻어내는 기술개발에 적극 나서고있다. 지금까지 개발된 수소생산방법에는 물전기분해방법, 갈탄에서의 추출방법, 액화가스의 성질을 변화시키는 방법, 수증기의 성질을 변화시키는 방법 등 여러가지가 있다.

공화국에서도 수소에네르기개발에 힘을 넣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기술을 개발하며 그에 토대하는 첨단기술산업을 창설하고 발전시킬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박차를 가하고있다.

최근 국가과학원 수소에네르기연구소에서 물을 임풀스전기분해하는 방법으로 얻은 수소산소혼합가스를 연료로 하여 금속을 절단하는 수소금속절단기를 개발한데 이어 태양빛전지에 의한 수소의 발생과 수소—연료혼합연소기술개발을 적극 다그치고있다.

아직은 시작에 불과하지만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전진하고있는 수소에네르기연구소 과학자들의 기세는 드높다.

현은경

고추

조선속담에 고추는 작아도 맵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고추의 대표적인 맛은 매운 맛이다.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 습성을 가지고있는 우리 선조들은 오랜 옛날부터 고추를 재배하여 식생활에 널리 리용하였다.

고추는 가지과에 속하는 열매남새이다. 원래 열대지역에서 여러해살이작물로 재배되였던 고추는 조선을 비롯한 온대지역에서 한해살이작물로 재배되였다.

《지봉류설》, 《산림경제》를 비롯한 옛 문헌들에 조선에서 오래전부터 고추가 널리 재배되였으며 식생활에 리용되였다는것을 보여주는 자료들과 고추를 음식가공에 리용하는 여러가지 방법이 기록되여있다.

고추가 널리 보급되고 음식가공에 적극적으로 쓰이게 되면서부터 고추장과 같이 고추를 리용하여 만든 음식의 종류가 다양해지게 되였다.

고추는 매운 맛에 먹는다. 고추의 매운 맛은 입안과 위를 자극하여 위액 등의 분비를 강화하고 식욕을 높이며 혈액순환을 촉진시킨다.

고추의 매운 맛을 나타내는 성분은 카프사이신이다. 자료에 의하면 카프사이신은 비만증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으며 암발생을 억제하는 작용도 한다고 한다. 이밖에도 카프사이신은 항염증, 진통효과도 나타낸다고 한다.

본사기자

소고기풋고추장졸임

사화

도끼바위와 화살바위 (2)

글 지홍길, 전종섭, 그림 채태성

아침을 먹고난 그들은 앞산골짜기로 들어갔다. 거기에는 몇백년 묵은 느티나무, 참나무들이 빽빽이 우거져있었다.

한백호는 힘내기에선 자신만만한지라 먼저 나무뽑기내기를 하자고 했다.

최도령의 동의를 얻은 한백호는 세아름이나 되는 느티나무를 안고 《끙》 하고 힘을 썼다. 대번에 나무는 뿌리채 뽑혔다.

그러나 최도령은 비지땀을 철철 흘리며 한아름이 되나마나 한 느티나무를 겨우 뽑았다.

힘내기에서 이긴 한백호는 내심 우쭐해졌다.

《허허, 힘내기에선 내가 앞선셈이로군.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승부를 가를수 없으니 이번에는 무슨 내기를 하겠는지 그쪽에서 정하오.》

한백호는 이렇게 제법 아량을 보이였다.

최도령은 칼쓰기와 활쏘기를 하자고 했다. 두 젊은이는 먼저 서슬푸른 칼을 비껴들고 검술시합을 했다.

최도령의 검술이 얼마나 능란한지 칼이 눈에 잘 보이지 않았다.

한백호가 욱 하는 마음에 칼날을 내리치면 어느새 최도령은 비껴 찌르고 약한 곳을 찾자고보면 칼날 돌리기를 바람개비 돌듯 하였다.

세합이나 지고난 한백호는 사기가 뚝 떨어졌다.

다음은 활쏘기내기인지라 최도령이 커다란 활과 화살을 가져왔다. 그는 한백호의 손에 활과 살 한대를 쥐여주며 이렇게 말하였다.

《자, 받소. 과녁은 저기 하늘중천에 떠도는 독수리요. 그대의 살대엔 푸른 표적을 달았고 나의 살대엔 붉은 표적을 했으니 다같이 쏘기오.》

《하나, 둘, 셋》

구령에 따라서 두개의 화살이 《핑—》 하는 소리를 내며 시위를 떠나 하늘로 날아올랐다.

공중에서 먹이를 찾아 빙빙 돌던 독수리는 별안간 날아든 화살을 맞고 돌멩이처럼 땅에 떨어졌다.

두 젊은이는 독수리가 떨어진 곳으로 달려갔다. 살을 맞고 떨어진 독수리를 쳐들어보니 한백호가 쏜 화살은 없고 최도령이 쏜 한대의 화살이 목에 정통으로 꿰여있었다.

활쏘기에서도 지고난 한백호는 기분이 나빴다.

허나 최도령은 도리여 내기에서 두번이나 이긴것을 미안해하였다.

《난 그대의 장수힘이 막부러울뿐이요.》

최도령의 이런 말까지 듣고보니 한백호는 더욱 얼굴이 뜨거워났다.

《부끄럽소.》

한백호는 뒤덜미를 긁으며 몸둘바를 몰라했다.

무예와 결합되지 못한 나의 힘을 어디에 쓴단 말인가. 아무리 힘이 장사여도 병장기를 다룰줄 모르면 참 다운 군사라고 말할수 없다.

애초에 아버지가 나를 여기 운학도사에게로 보낸것은 이때문이 아니였던가.

한백호는 여기에 있으면서 최도령의 귀신같은 무술솜씨를 배워야겠다고 생각하였다.

《최도령, 내 진심으로 하는 말인데 한가지 청을 받아주겠소?》

《청이라니? 무언데…》

《다른게 아니구 내 이제부터 무술내기에서 이긴 최도령을 스승으로 섬길테니 나에게 그 훌륭한 무술을 좀 배워주오.》

최도령은 갑자기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지면서 《아니, 그건 안될 말이요.》 하고 딱 잡아뗐다.

《?…》

《나도 무술을 배우는 처지에 누구를 배워주고말고가 있겠소.》라고 최도령은 잘라던지듯 거절하였다.

그럴수록 한백호는 최도령에게 그대는 운학도사한테서 배운것만큼 자기를 가르쳐달라고 간절히 사정하였다.

《할수 없군. 그럼 서로 배워주고 배우면서 함께 도를 닦읍시다. 헌데 명심할것은 운학도사님은 힘을 키우며 무술을 닦으려면 그 어떤 일이 있어도 하루라도 쉬여서는 안된다고 하였소.

그러니 우선 매일 화살은 몇개 쏘며 달리기는 얼마만한 거리를 하고 창칼쓰기를 몇합 한다는것을 정합시다. 그래야 운학도사님이 가르치신대로 무예와 술법을 터득할수 있을거요.》

《무사의 도를 닦는 기간은 그것을 지키겠다는것을 장부의 마음을 걸고 맹약하오.》

그들은 3년간에 할 일을 정해놓고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맹약을 어기지 않을것을 다짐하였다. 최도령은 말하였다.

《우리가 무술을 닦는것은 훌륭한 군사가 되기 위해서요. 이것은 그대도 알고있을거요. 군사에는 군법과 함께 군률이 있는 법, 이자 우리가 맹약한것을 군률로 여기고 엄하게 지킵시다. 군률이 없는 군사는 충의도 없소. 군률을 어기였을 때에는 누구나 엄한 다스림을 받아야 하오.》

《내 이미 그대를 스승으로 섬길것을 다짐했으니 부디 나를 채찍질해주오.》

《좋소. 나를 스승으로 여기겠거든 이제부터 나의 말에 불복하여서는 안되겠소.》

그들은 무예를 닦는 기간 잠잘 때를 내놓고는 언제나 갑옷과 투구를 벗지 않기로 약속했다.

한백호가 집떠날 때 아버지가 지어준 갑옷은 고기비늘같은 철편을 잔뜩 달아놓았는데 보기와는 달리 퍽 무거웠다.

그날 한백호는 최도령의 초막 맞은켠에 자기의 초막을 한채 지었다. 그리고 밥은 한가마밥을 먹되 잠은 각기 제 방에서 자기로 했다.

처음 한백호는 스승으로 섬기는 최도령과 한초막에서 살면서 그의 몸가짐과 행동까지도 본받자고 했는데 최도령이 굳이 그것만은 안된다고 하여 할수없이 초막을 따로 짓지 않으면 안되였던것이다.

이튿날부터 맹훈련이 시작되였다.

그들은 무거운 갑옷을 입고 머리에 투구를 쓰고 활과 전통을 어깨에 메고 깊은 골짜기로 들어갔다.

펑퍼짐한 너럭바위우에 올라선 최도령은 한백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륙량(옛날에 쓰던 무게의 단위)중 화살을 80보 넘기면 무과시험에 합격이지만 우리는 그보다도 훨씬 높은 목표를 세우기오. 운학도사께서는 늘 말씀하시기를 장수가 되자면 저 바위우에 살을 쏘아 화살이 거기에 박혀야 한다고 하셨소. 자, 보시오.》

최도령이 전통에서 살을 뽑아 활에 메우더니 시위를 팽팽하게 당겼다놓았다.

살은 《핑—》 하고 날아가 맞은켠 바위벽에 푹 꽂혔다.

(과시 운학도사의 제자가 다르기는 다르구나. 내 언제면 저렇게 될가?)

《자, 이젠 그대가 쏴보오.》

한백호가 쏜 화살은 바위에 맞고 땅에 툭 떨어지고 말았다.

《겨눔이 정확치 못하고 활에 힘을 덜 주었소.》

한백호는 활을 쏘고 또 쏘았지만 좀처럼 화살은 굳은 바위에 박아넣지 못하였다.

두 젊은이는 날마다 활터에서 지쳐서 돌아왔다.

억대우같은 한백호가 힘겨워하는 판에 걸보기에도 연약한 최도령이야 더 말해 무엇하랴.

그러나 최도령은 언제 한번 힘들다는 말을 입밖에 내비치지 않고 담차고 맵짜게 훈련을 다그쳤다. 한백호도 묵묵히 따라했다.

최무선의 아들과 《장갑차》

최무선의 아들인 최해산은 15살 나던 해에 아버지가 남긴 화약제조법에 관한 책 1권을 어머니를 통하여 넘겨받아 그 비법을 깊이 연구하여 화약과 화약무기를 더욱 발전시켰다.

그는 1409년에 화약무기(화포)를 차우에 싣고다니면서 불화살을 쏠수 있게 하고 사수를 보호하는 장갑장치까지 설치한 일종의 《장갑차》를 만들었으며 그것으로 왜적을 쳐부시고 민족의 존엄을 지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본사기자

세계최초의 신문—조보

출판인쇄기술에서 어느 민족보다도 앞서 발전한 우리 선조들은 15세기초에 세계최초의 신문인 조보를 발간하였다.

도이췰란드에서는 1609년, 영국에서는 1622년에 최초의 주간인쇄신문을 발간하였다. 그후 근 반세기가 지나서부터야 근대 일간신문들이 발간되기 시작하였다.

그보다 훨씬 앞선 시기에 나온 조보는 봉건정부가 국내에서 일어난 각종 사변들과 그에 대한 정부의 처리정형 등을 제때에 통보할수 있게 하기 위해 발행한것이다.

물론 현대의 신문처럼 그 어떤 신문제호가 붙은것이 아니라 종이에 날자를 쓰고 각이한 사변들을 라렬식으로 써내려간것이였다.

본사기자

유모아

올림픽과 내림픽

한 올림픽선수권보유자가 오래간만에 시골에 있는 자기 집으로 갔다.

그는 며칠전에 불치의 병이라는 진단을 받았던것이다.

어느날 저녁 어머니는 풀이 죽어있는 아들에게 물었다.

《너 왜 그러니?》

《어머니, 전 이번 올림픽경기대회에 올라가지 못할것 같애요.》

어머니는 웃으며 말하였다.

《고민거리도 없는게구나. 넌 올림픽선수권을 보유했으니 이젠 내려가서 내림픽선수권을 따내려무나.》

주소: 평양 통일신보사 (해외동포여러분의 서면련락주소: 조선평양 국제우편국사서함 제150호) 전화: 책임주필실 366-0732, 편집국 366-0289 편집위원회